

# Contents

- **포럼개요** .....02
  - 1. 총평
  - 2. 주요행사
  - 3. 회의운영
  - 4. 부대행사 운영
  - 5. 참가등록자 분석
  - 6. 언론보도
  
- **세션별 주요논의 결과** .....13
  
- **별첨** .....45
  - 1. 행사일정표
  - 2. 포럼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1. 총 평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2012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기간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36개국, 23개 기관 3,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주포럼은 그동안 국제적인 종합포럼으로 발전해오면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연례화된 첫 번째 포럼입니다.

이번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오므르벡 바바노프 키르기스스탄 총리, 폴 존 키팅 호주 전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OSCE 사무총장 등의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와 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및 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워즈니악, CEO등이 많은 국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3일간 일정으로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개최되어 개회식, 세계지도자 세션, 특별세션과 60여 개의 동시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400여명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평화, 안보, 경제, 경영, 인권, 여성 등의 이슈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다수의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세션을 조직하여 참여함으로써 유료참가제의 정착 및 정책 포럼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참여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다보니, 세션별 소주제가 전체주제와의 연결성이 부족했던 점이 차기 포럼에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공동주최자가 되어 중앙언론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중앙언론에 대한 홍보 확대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의 역동성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인구의 절반이 되는 아시아는 문화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시아의 변화는 세계사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의 미래는 바로 세계의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단계는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호협력, 발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찾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비전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7회 제주포럼에서는 정치, 경제, 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의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으며, 상호 의존하면서 평화를 증진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앞으로 우리 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포럼은 아시아 국가간의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건설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갈등은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식이 형성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번영하면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주포럼에 기조연설로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키르기스스탄의 바바노프 총리는 포럼 현장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간 총리회담도 가짐으로써 올해부터 연례화된 제주포럼이 국제외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제7회 제주포럼의 특징은,

▶ 과거 포럼대비 대규모 전·현직 세계지도자들이 참석하여, 국제적 종합포럼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포럼으로 개최되었으며, 특히, 세계적 IT기업 ‘애플’의 공동창업자로서 스티브 잡스 타계 이후 주목 받는 스티브 워즈니악을 초청해 “PC 시대의 종말과 IT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도내 고등학생 300여명이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키워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및 국제회의의 참관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의 시민으로서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포럼 지원조례 제정으로 개최된 첫 포럼으로 제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주제의 다양화로 국제적 종합포럼으로서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평화17개, 경제28개, 환경5개, 기타 12개 등).

▶ 언론홍보와 관련하여,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 기업 CEO 등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중국의 공공외교학회 비서장을 단장으로 한 북경,상해,광주 지역의 고위 언론인단이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포럼은 물론 제주도 전반에 대한 기획 취재에 나섬으로써 주목을 끌었습니다.

▶ 이번 포럼은 과거포럼 대비 대규모로 도민 1,200여명이 참석하여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포럼으로서 도민들에게 긍정적 지원과 격려를 이끌어 내는 포럼으로서 그 원년을 기록하였으며, 제주 관련 이슈를 다룸으로서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제주발전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주포럼은 한층 도민과 지역에 다가감으로써 제주지역 MICE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로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아름다운 섬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 교류와 협력의 장소 제주에서 개최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 행사 개요

- ◆ 주 제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New Trends and the Future of Asia)”
- ◆ 일 시 2012년 5월 31일(목)~6월 2일(토)
- ◆ 장 소 해비치 호텔&리조트, 제주
-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중앙일보
- ◆ 주 관 제주평화연구원
- ◆ 후 원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외교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세종연구소, 인간개발연구원, 제주대학교, 제주개발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한라대학교, 차이나매거진, KB 국민은행, 통일정책연구협의회, 한경비즈니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2. 주요행사

### □ 개회식

- ◆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0:00-11:20, 그랜드볼룸
- ◆ 프로그램
  - 개회사 -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환영사 - 공로명(동아시아재단 이사장)
  - 기조연설 - 김황식(대한민국 국무총리)  
오므루벡 바바노프(키르기스스탄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OSCE 사무총장)  
폴 존 키팅(前 호주총리)
- ◆ 참석자수: 600여명

### □ 한· 키르기스스탄 총리 면담

- ◆ 일시 및 장소: 6월 1일 09:30-09:50, 루비홀
- ◆ 참석자수: 20명

### □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특별오찬

- ◆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2:40-14:00, 루비홀
- ◆ 참석자수: 60여명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 ◆ 일시 및 장소: 6월 1일 19:00-20:20, 그랜드볼룸
- ◆ 프로그램
  - 환영사 - 우근민(제주포럼 조직위원장)
  - 축사 - 오충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건배제의 - 폴 존 키팅(前 호주총리)
  - 축하공연 - 제주도립무용단
- ◆ 참석자수: 700여명

### □ 폐회식 및 JDC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 ◆ 일시 및 장소: 6월 2일 17:20-18:40 그랜드볼룸
- ◆ 프로그램
  - 식전공연 - 일렉트릭그룹 '샤인'
  - 폐회사 - 한태규(제주포럼 집행위원장)
  - 만찬사 - 변정일(JDC 이사장)
  - 건배제의 - 람베르토 자니에르(OSCE 사무총장)
- ◆ 참석자수: 500여명

### □ JDC 이사장 주최 중국기업인 특별만찬

- ◆ 일시 및 장소: 5월 31일 19:00-20:20, 그랜드볼룸
- ◆ 프로그램
  - 축하공연 - 분당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 만찬사 - 변정일(JDC 이사장)
  - 답사 - 니제(중국 녹원전자자동차 총재)
  - 건배제의 - 황용이  
(귀주마오타이주류업운영관리공사 회장)
- ◆ 참석자수: 200여명



### 3. 회의운영

#### □ 외교 · 안보 · 국제협력 분야 (총 17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개회식 기초연설	제주평화연구원	600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제주평화연구원	380
한미 원자력 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외교통상부	13
한·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외교통상부	43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제주특별자치도	42
6자 회담의 전망과 미래	제주평화연구원	52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I·II	동북아역사재단	64/63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외교통상부	30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II	KOICA·세종연구소	47/35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동아시아재단	24
한반도 통일과 중국	통일정책연구협의회	78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동아시아재단	28
[외교관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제주평화연구원	23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48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중앙일보	30

#### □ 경제 · 경영 분야 (총 28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보안 정책의 미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9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0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95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0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 컨텐츠	차이나매거진	40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전략을 읽는다	인간개발연구원	35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0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100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 전략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5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 애널리스트의 경쟁력을 말한다	한경비즈니스	60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65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I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7/52
금융산업과 법	한경비즈니스	60
물류 산업 & 유통 채널	차이나매거진	50
지식 재산권과 여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62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와 기업의 과제	인간개발연구원	55
지세화(Localization) - 세계를 움직이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0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동아시아재단	22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차이나매거진	65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한국교통연구원	18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개발연구원	60
한-중 합작 펀드 결성 및 운용 방안	차이나매거진	56
CSV(공유가치창출) - 글로벌 기업의 성공조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2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인간개발연구원	40
국가경쟁력의 글로벌 트렌드 -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 효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0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5
아시아의 미래 전략 -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0

## □ 환경 분야 (총 5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58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제주한라대학교	51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 비전	제주특별자치도	48
개도국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8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33



□ 제주도 관련 분야 (총 5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5
제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0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	김만덕기념사업회	105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제주발전연구원	48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

□ 교육 분야 (총 2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대학교와 교류 협력 구축방안	제주대학교	50
해외 유명대학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유치 방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6

□ 여성 분야 (총 3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젠더와 장애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175
여성과 브랜드 창조	제주특별자치도	105
BPW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UN의 WEP	서울과학종합대학원	70

□ IT 분야 (총 2개 세션)

세션 주제	주관 기관	청중
[특별세션]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한경비즈니스	700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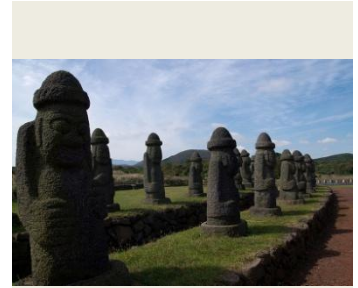


## 4. 부대행사 운영

### □ 관광프로그램

- ◆ 일시: 6월 1일 14:00-18:00 / 6월 2일 14:00-18:00
- ◆ 프로그램
  - 오름 & 돌문화투어  
호텔 → 제주돌문화공원 → 백약이오름 → 호텔
  - 유네스코 자연유산탐방  
호텔 → 섭지코지 → 성산일출봉 → 해녀박물관 → 호텔
- ◆ 참석자수: 양일간 총 109여명

투어명	일정	참여 인원
오름 및 돌문화투어	6월1일(금)	19명
	6월2일(토)	16명
유네스코 자연유산탐방	6월1일(금)	47명
	6월2일(토)	27명
총		109명



### □ 풍낭 라운지(참가자 휴게 라운지)

- ◆ 운영시간: 5월 31일 ~ 6월 2일, 09:00-18:00
- ◆ 장소: 지하 1층 로비
- ◆ 이용인원: 1,000여명

### □ 중국 언론인 간담회

- ◆ 일시: 6월 1일 16:00-17:00
- ◆ 장소: Executive Floor Lounge
- ◆ 인원: 30여명



### □ 가수 '존 박' 특별공연

- ◆ 일시: 5월 31일 15:30-16:00
- ◆ 장소: 그랜드볼룸
- ◆ 인원: 700여명



### □ MBA(Music Business Art) Concert from aSSIST

- ◆ 일시: 6월 1일 20:20-21:00
- ◆ 장소: 다이아몬드홀 A
- ◆ 인원: 100여명



###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축하 공연

- ◆ 주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 일시: 6월 1일 14:00
- ◆ 장소: 그랜드볼룸 A
- ◆ 인원: 170여명

### □ 홍보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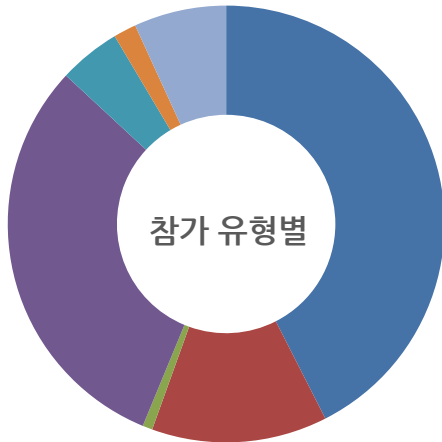
- ◆ 운영일시: 행사기간 중
- ◆ 장소: 다이아몬드홀 포이어
- ◆ 설치기관수: 5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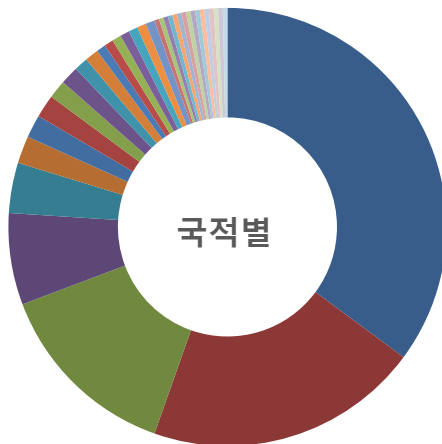


## 5. 참가등록자 분석

>> 총 36개국 3,148명 등록



- 일반참가자(1,336명)
- 역할참가자(409명)
- 특별초청자(23명)
- 현장등록 및 옵서버(964명)
- 기자단(144명)
- 주최/주관/후원 기관 관계자(53명)
- 자원봉사자/서포터즈/통역 등 스태프(215명)



- |             |                 |
|-------------|-----------------|
| ■ 중국(104명)  | ■ 일본(60명)       |
| ■ 미국(41명)   | ■ 키르기스스탄(20명)   |
| ■ 영국(11명)   | ■ 러시아(6명)       |
| ■ 호주(5명)    | ■ 독일(5명)        |
| ■ 인도네시아(4명) | ■ 태국(4명)        |
| ■ 필리핀(3명)   | ■ 스페인(3명)       |
| ■ 노르웨이(2명)  | ■ 슬로바키아(2명)     |
| ■ 싱가포르(2명)  | ■ 아프가니스탄(2명)    |
| ■ 인도(2명)    | ■ 캄보디아(2명)      |
| ■ 말레이시아(2명) | ■ 남아프리카 공화국(1명) |
| ■ 대만(1명)    | ■ 멕시코(1명)       |
| ■ 몽골(1명)    | ■ 베트남(1명)       |
| ■ 앙골라(1명)   | ■ 요르단(1명)       |
| ■ 우크라이나(1명) | ■ 이탈리아(1명)      |
| ■ 카자흐스탄(1명) | ■ 캐나다(1명)       |
| ■ 파키스탄(1명)  | ■ 핀란드(1명)       |
| ■ 홍콩(1명)    | ■ 덴마크(1명)       |
| ■ 에티오피아(1명) |                 |

Note: 한국 참가등록자는 총 2,852명으로, 차트에서 배제하였음.  
(국외 참가등록자 총 296명)

## 4. 언론 보도

### 해외언론

#### 1. 중국 신화사통신

##### 1) 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

- ◆ 济州岛努力打造中国游客旅游乐土: 访韩国济州道知事禹瑾敏(6월 2일)

##### 2) 신화사통신 보도 널리 전재

新浪, 中国旅游新闻网, 环视旅游网, 新华网, 中国网, 凤凰网, 百度 등 전재

#### 2. 남방인물주간

##### 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

- ◆ 济州 对中国敞开胸怀 -- 访济州道知事禹瑾敏(6월 6일)

#### 3. 중국 공공외교학회

- ◆ 札哈尔学会中国媒体高管代表团参加“第七届济州论坛”(6월 4일)

#### 4. 중국 공공외교학회 산하 7개 언론매체 보도 기사 취합중임

### 국내언론\_중앙

#### □ 종합일간지

##### (1) 중앙일보

- ◆ 알림: ‘아시아의 미래’ 제주포럼 엽니다(5월28일)
- ◆ “제주공항 확장할지, 새 공항 건설할지 검토 중”: 우근민 제주도지사 인터뷰(5월 29일)
- ◆ 제주포럼 올해 일곱 번째 ...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 미래’ 조명(6월 1 일)
- ◆ “엔지니어들에게 혁신은 예술이다” - 제주포럼 특별세션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 창업자와 대화’ (6월 1일)
- ◆ 김 총리 “2050년 세계 리더는 아시아”- 제주포럼 각국 지도자 기조연설 (6월 2일)
- ◆ “한· 중 접근은 문명의 회복... 세계 주도권 잡을 계기”- 제주포럼 한중 수교 20년 세션(6월 2일)
- ◆ “북핵 해결, 러 일 뿐 4자회담 바람직”- 제주포럼 6자회담 전망과 미래 세션(6월 2일)
- ◆ “유럽 안전, 아프간 평화에 달려” 유럽안보협력기구 자니에르 총장 인터뷰 (6월 4일)
- ◆ “북한이 직시해야 할 현실” (6월 4일)
- ◆ “6000년 흘러온 ‘세계화’... 한· 미 FTA는 작은 지류” 나얀 찬다 예일대 출판국장 인터뷰(6월 6일)

##### (2) 동아일보

- ◆ 워즈니악 “차세대 기기, 감정 읽는 개인비서 돼야” (5월 31일)
- ◆ 김총리 “유럽위기, 무원칙한 포퓰리즘 결과 (6월 1일)

##### (3) 한겨레

- ◆ ‘아시아 공동번영을’ 제주평화포럼 개막 (5월 31일)
- ◆ 동북아 평화와 번영 역행 해군기지 중단해야 (6월 1일)

##### (4) 한국일보

- ◆ 워즈니악 “차세대 기기, 감정 읽는 개인비서 돼야” (5월 31일)
- ◆ 김총리 “유럽위기, 무원칙한 포퓰리즘 결과” (6월 1일)

## □ 통 신

### (1) 연합뉴스

- ◆ 제7회 제주포럼 31일 개막..워즈니악 특별세션(5월 14일)
- ◆ '제주포럼' 31일 개막..아시아 미래 논의(5월30일)
- ◆ 제주서 '젠더와 장애' 주제 국제심포지엄(5월 31일)
- ◆ 워즈니악 "차세대 기기, 감정 읽는 개인비서 돼야"(5월 31일)
- ◆ 김총리 "유럽위기, 무원칙한 포플리즘 결과" (6월1일)
- ◆ '제7회 제주포럼' 개막..아시아 미래 등 논의(6월1일)

### (2) 뉴시스

- ◆ 스티브 워즈니악 제주서 '애플' 비밀 밝힌다(5월 14일)
- ◆ 제주포럼 역대 최대 2000명 참석 내일 개막(5월 30일)
- ◆ 평화와 번영위한 '제주포럼' 오늘 개막...역대 최대 규모(5월 31일)
- ◆ 김태석 차관, '젠더와 장애' 국제심포지엄 참석(5월 31일)
- ◆ 워즈니악 "돈 못벌어도 연구개발로 미래 방향 잡아야"(5월 31일)
- ◆ 스티브 워즈니악 "PC 시대의 종말은 아직"(5월 31일)
- ◆ 김 총리 "北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 단합된 입장 보여야"(6월 1일)
-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막...“아시아의 미래 논의”(6월 1일)
- ◆ 폴존킨딩 호주 전 총리 “美, 中강대국 부상 받아들여야”(6월 1일)
- ◆ 리우밍 주임 “北, 6자회담 돌아올 가능성 있어”(6월 1일)
- ◆ 이디디 홀딩스, '제7회 제주포럼' 참여 내길(6월 6일)

## □ 경제지

### (1) 한국경제

- ◆ “7대경관 선정 · 제주포럼은 제주발전 견인차”: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터뷰(5월 27일)
-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제주포럼, 아시아의 다보스포럼 될 것” (5월 29일)
- ◆ 애플 공동 창업자 워즈니악 “나도 삼성 스마트 TV 보고 있다”(5월 30일)
- ◆ 최병오 패션그룹형식 회장 “1등 브랜드 비결은 역발상”(6월 3일)

### (2) 매일경제

- ◆ 박수전 이스타항공 대표 “한-중 LCC 활성화 위한 환경구축 필요” (6월 4일)

### (3) 헤럴드경제

- ◆ 키팅 전 호주 총리, “美, 中 부상이란 현실 수용해야” (6월 1일)
- ◆ 제주포럼 한류세션, ‘K팝을 한류관광으로 발전시키자’(6월 5일)

### (4) 아주경제

- ◆ '제주포럼' 오는 31일 개막(5월 14일)
- ◆ 강태선 블랙야크 대표, 제주포럼서 '글로벌 TOP 5' 도약 선언(5월 31일)
- ◆ 박수전 이스타항공 대표, 제주포럼 항공부문 주제 발표(6월 4일)
- ◆ 중소기업, 제주 관광사업 넘어 의료 · 청정사업 '관심집중' (6월 5일)

### (5) 아시아경제

- ◆ 아시아 미래조명 31일 '제주포럼' 개막(5월 17일)
- ◆ 이디디컴퍼니, 제주포럼 참여 등 추진출 모색(6월 12일)

### (6) 파이낸셜 뉴스

- ◆ IT 최고경영자 전문포럼 인기(5월 11일)
- ◆ 코이카-세종연구소 '외교정책과 ODA' 콜로키엄 개최(5월 31일)
- ◆ 이스타항공 박수전 대표이사 제주포럼에서 주제발표(6월 4일)

## □ 방 송

### (1) JTBC

- ◆ '뉴스 사사건건' 프로그램...우근민 제주도지사 출연(5월 23일)
- ◆ 제주포럼 영상 광고

### (2) MBC

- ◆ 워즈니악 “차세대 기기, 감정 읽는 개인비서 돼야”(5월 31일)
- ◆ 김총리 “유럽위기, 무원칙한 포플리즘 결과” (6월 1일)
- ◆ 김 총리 “北 비핵화 위해 국제사회 단합 보여야” (6월 1일)

### (3) SBS

- ◆ 워즈니악 “차세대 기기, 감정 읽는 개인비서 돼야”(5월 31일)
- ◆ 김 총리 “유럽위기, 무원칙한 포플리즘 결과” (6월 1일)

### (4) YTN

- ◆ 제주포럼개막..아시아 미래 논의(6월 1일)
- ◆ 김황식 총리, “북한 도박은 세계 평화에 큰 위협” (6월 1일)

### (5) Arirang TV

- ◆ MICE 연관 제주포럼 보도 (6월 1일)

## □ 영자지

### (1) Korea Joongang Daily

- ◆ Apple's Wozniak gives lecture at Jeju peace forum(6월 1일)
- ◆ Apple's Wozniak wants a device that understands(6월 2일)
- ◆ Stability of Korea a key topic at Jeju peace forum(6월 2일)

### (2) Korea Herald

- ◆ Jeju peace forum to discuss future of Asia, global issues(5월 31일)
- ◆ Forum calls for Asia-Pacific cooperation(6월 1일)
- ◆ Calls for tactical nuclear weapons foolish: Halperin(6월 4일)
- ◆ Establishing S .Korea-China ties was not easy: Zhang(6월 3일)
- ◆ Kim Jong-un still unknown to Chinese leaders, officials: Xu(6월 3일)

## □ 주간지

### (1) 한경비즈니스

- ◆ 스티브 워즈니악: 한국을 사로잡은 '마법사 워즈'(6월 13일)
- ◆ 스티브 워즈니악: 한국 찾은 'IT전설', 3박4일 동행취재(6월 13일)
- ◆ 스티브 워즈니악: “혁신은 인간과의 소통을 더 쉽게 하는 것”(6월 13일)

### (2) 여성신문

- ◆ 제주를 힐링 아일랜드로(6월 8일)

## 제주지역언론

### □ 방 송

#### (1) 제주 KBS

- ◆ '제주포럼' 내일 개막..아시아 미래 논의 (5월 30일)
- ◆ 제주포럼 아시아 시대 중심역할 기대 (6월 1일)
- ◆ 제7회 평화·번영 위한 '제주포럼' 폐막 (6월 2일)
- ◆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제주포럼 D-7, 준비상황은? (5월 24일)

#### (2) 제주 MBC

- ◆ 제주포럼 31일 개막.. (5월 19일)
- ◆ 제주 포럼 이번 주 개막(리포트) (5월 28일)
- ◆ (리포트) 제주포럼 시작 (5월 31일)
- ◆ 제주포럼 개최식 (6월 1일)
- ◆ 좌담 프로그램 <시사진단> 제주의 미래, 제주포럼 (5월 25일)

#### (3) JIBS

- ◆ 제주포럼 최대 규모로 개최 (5월 14일)
- ◆ 제주포럼 외연 확대[save] (5월 24일)
- ◆ 제주포럼 시작/ "제주형 IT 육성" (5월 31일)
- ◆ 제주포럼 60개 세션 진행 (5월 31일)
- ◆ 제주포럼 종합포럼 우뚝/ 성과를 기대 (6월 1일)
- ◆ 제주국제자유도시 세션 집중 (6월 1일)
- ◆ 브랜드 역량이 관건 (6월 1일)
- ◆ 국제종합포럼 도약 평가 (6월 4일)

#### (4) 제주KCTV

- ◆ 제7회 제주포럼 31일 개막..역대 최대 규모 (5월 14일)
- ◆ 제주포럼 31일 개막 [리포트] (5월 23일)
- ◆ 제7회 제주포럼 오늘 개막 (5월 31일)
- ◆ "아시아 미래는?"...제주포럼 개막 [리포트] (5월 31일)
- ◆ "아시아 대표포럼으로 도약" [리포트] (6월 1일)
- ◆ 제주포럼 이틀째...협력 방안 '논의' (6월 1일)
- ◆ 제주포럼 개막..."아시아 미래 공동 모색" (6월 1일)
- ◆ 중국 기업, 제주핵심사업 높은 관심 (6월 5일)

### □ 종합일간지

#### (1) 제주일보

- ◆ 5월 14일·22일·24일·26일·29일·31일,  
6월 1일·2일·4일·5일·11일에 총 24건의 기사 보도

#### (2) 한라일보

- ◆ 5월 3일·14일·15일·16일·28일·29일·30일·31일,  
6월 1일·2일·3일·4일·5일·11일에 총 33건의 기사 보도

#### (3) 제민일보

- ◆ 5월 14일·20일·21일·28일·22일·23일·28일·30일·31일  
6월 1일·2일·3일·4일·5일에 총 30건의 기사 보도

#### (4) 제주매일

- ◆ 5월 28일·29일·30일·31일, 6월 3일·4일·5일에 총 8건 보도

#### (5) 제주도민일보

- ◆ 5월 14일·24일·27일·30일·31일, 6월 1일·2일·3일·4일에  
총 19건의 기사 보도

### □ 인터넷신문

#### (1) 제주의 소리

- ◆ 5월 14일·25일·28일·29일·30일·31일,  
6월 1일·2일에 총 19건의 기사 보도

#### (2) 미디어제주

- ◆ 5월 14일·16일·21일·30일·31일,  
6월 1일·2일에 총 12건의 기사 보도

#### (3) 제주투데이

- ◆ 5월 11일·14일·30일·31일,  
6월 1일·2일에 총 17건의 기사 보도

#### (4) 환경일보

- ◆ 5월 14일, 6월 1일·2일·4일·5일에 총 6건의 기사 보도

#### (5) 시사제주

- ◆ 5월 15일·30일·31일, 6월 1일·3일에 총 10건의 기사 보도

#### (6) 이슈제주

- ◆ 5월 11일·14일, 6월 1일·3일에 총 6건의 기사 보도

#### (7) i-서귀포

- ◆ 6월 4일에 1건의 기사 보도

#### (8) 뉴스제주

- ◆ 5월 14일·30일·31일, 6월 1일·3일에 총 9건의 기사 보도

#### (9) 제주포커스

- ◆ 5월 14일·27일·30일·31일, 6월 1일·3일에 총 9건의 기사 보도

#### (10) 제주인터넷뉴스

- ◆ 5월 11일·14일·31일, 6월 1일·3일에 총 6건의 기사 보도

#### (11) 코리아인터넷방송

- ◆ 6월 1일에 1건 기사 보도

#### (12) 제주프레스

- ◆ 5월 13일·14일·17일, 6월 1일에 총 8의 기사 보도

#### (13) 헤드라인제주

- ◆ 5월 11일·14일·30일·31일, 6월 1일·2일에 총 13건의 기사 보도

#### (14) 제이누리

- ◆ 5월 14일·30일·31일, 6월 1일·2일에 총 11건의 기사 보도

### □ 주간지

#### (1) 제주위클리(영자신문)

- ◆ 5월 22일, 6월 25일에 총 4건의 기사 보도

#### (2) 제주주간(중국어신문)

- ◆ 5월 15일, 6월 15일에 총 6건의 기사 보도

## 세계지도자세션

###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본 회의는 박진 국회의원의 사회로, 폴 키팅 전 호주 총리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관계, FTA를 비롯한 아·태 지역의 무역관계, 녹색성장,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EU 사례의 아시아 적용 등을 논의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아시아로 나간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며 아세안 +3, 한중일 정상회담의 제도화가 하나의 사례로 생각되며 다음 세대는 보다 통합되어 하나가 된 아시아에 살게 될 것이다.” - 폴 키팅

“경제성장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아시아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만큼 세계 CO2배출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성장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녹색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 한승수

## 특별세션

###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사 공동창업자와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애플 창업 스토리와 성공비밀, 포스트PC시대의 방향, 기술 진보에 있어서의 창의성의 중요성과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탁월한 생각은 우연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창의력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따라가는 것은 쉽다. 그러나 따라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 수 있다” - 스티브 워즈니악

## 평화·안보·국제협력

### 한미 원자력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 사회: 김태현 (중앙대 교수)
- 발표: 임만성 (KAIST 교수) / Jack Spencer (미국 헤리티지재단 에너지환경정책팀장) /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 키워드: 한미 원자력협정, 사용후핵연료, 비확산, 파이로프로세싱, 에너지 안보

#### >>핵심 논의 내용

- ◆ 원전 21기 운영, UAE 원전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원자력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상호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한미 원자력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
- ◆ 향후 원전 증설 및 원자력 의존도 확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처분 필요성 증대, 그리고 안정적 핵 연료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 ◆ 핵확산 저항성이 높은 건식재활용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및 개발
- ◆ 원자력협력 격상을 통한 한미 양국의 원자력 산업 파트너십 제고 및 비확산 레짐 강화에 기여
- ◆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과 한미 원자력협정

### 한·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 사회: 신정승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 前 주중 한국대사)
- 발표: 권병현 (한·중 문화청소년협회 미래숲 대표, 한·중 수교협상 실무 수석대표)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장팅옌 (중·한 우호협회 부회장, 초대 주한 중국대사) 쉬둔신 (중국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중 수교협상 중국측 수석대표)
- 키워드: 한·중 수교, 한·중 수교의 계기, 한·중 수교 관련 일화, 북한문제와 한·중 협조, 한미동맹과 중국,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중 관계 전망

#### >>핵심 논의 내용

- ◆ 한·중 수교의 배경과 양국의 입장
- ◆ 한·중 수교 20년의 평가
- ◆ 한·중 관계의 개선방향 및 향후 전망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북한 문제 및 동북아 안보

- 북핵 문제에 있어서, 남북 당사자간 대화 및 북미 대화를 추진하고 특히 중국은 6자회담을 서서히 재개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한·중 양국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데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한반도의 통일

- 우리나라와 중국이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견지에서, 비핵화와 동북아 안정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을 제안함.
- 이러한 한·중 양국의 협력을 토대로,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공통 이해를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임.

### ◆ 한미동맹

- 한·중 양국은, 한미동맹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기제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제한된 선에서 공통된 인식을 구축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1.5트랙 회담의 활용, 경제·문화·외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확대해 나가면서 이러한 인식을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 중국인들의 험한 감정과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 개선방안

- 언론의 과대 보도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왜곡된 주장에서 비롯되는 인터넷 상의 대립에 대한 자정의를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함.
- 동북아의 평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중 양국의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층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이후의 한·중 간 협력 추진

- 경제적인 면에서의 상호 개방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전시킴.
- 이후 다층적, 다각적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이 상호 협력해 나감.
- 이를 위해, UN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과 비전통 안보분야(환경문제, 에너지, 통신, 금융, 과학 기술 발전 등)에서의 1.5트랙 및 2트랙 협력의 정례화 및 다양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 사회: (1부) 고성준(제주대학교 교수), (2부)카일 버그만(환태평양재단 사무총장)
- 1부 발표: > 경과보고(오승익 국제자유도시 본부장)
  - > 인사말씀(김현성 행정부지사)
  - > 인사말씀(제임스 허벨 환태평양재단 이사장)
  - > 기조연설(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 2부 토론:
  - (한국) 김현성(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 오승익(국제자유도시 본부장), 고성준(제주대학교 교수)
  - (미국) 제임스 허벨(환태평양재단 이사장), 카일 버그만(환태평양재단 사무총장), 캐슬린 스티븐스(전 주한미국대사)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미르 사프리킨 교류관광 국장, 게나디 투르모프 의회 의원, 다리야 스테그니 전문위원
  - (중국 엔타이) 자오 시양동 외사판공실 유럽/미주 과장
  -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Jovenee Sagun 도시기획개발관
- 키워드: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 >>핵심 논의 내용

- ◆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합의서” 논의와 서명
- ◆ 차기 개최지 논의
- ◆ 제주도 교류·협력 사업 협의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그간 공원이 건설된 태평양 연안 6개 도시와 환태평양재단이 각각 1:1의 개별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것을 확장하여, 6개 도시들 다자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본 환태평양 평화공원도시협의체 회의가 시사하는 바가 큼.
- ◆ 이번 제주 환태평양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에서는 향후 각 도시를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되는 데 합의했으며, 차기 개최지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제안되었음. 또한, 도시 상호간 활발한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는데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는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합의서”의 서명을 통해 명문화 되었음.
- ◆ 본 교류의 시발로 금년 10월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환태평양 도시협의체 6개 도시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제안되었으며, 각 도시의 대표들은 본국에 돌아가 이에 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
- ◆ 향후 본 합의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각 도시간 교류의 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태평양 평화공원 도시협의체 회의 운영규칙”에 대한 협의와 각 도시 대표의 서명이 필수적이며,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6자 회담의 전망과 미래

- 사회: 김태우 (통일연구원 원장)
- 발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토론: 피터 벡(아시아재단 한국대표)/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대학교 교수)/리우 밍(상해사회과학원 아태연구부 주임)
- 키워드: 6자 회담, 북핵문제, 2.29 합의, 4.13 발사, 신뢰, 지역 정부간 다자 안보협의체, 동북아

### >>핵심 논의 내용

- ◆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초 이후로 북핵 협상은 ‘진전과 실패’의 과정을 반복.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는 북핵 문제의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옴.
- ◆ 북한의 4.13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신뢰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하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가 될 뿐 진정한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북한이 신뢰를 회복코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추가적 도발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 6자 회담에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자 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역내 유일한 정부간 다자 안보 협의체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 평화와 안보 체제의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자 회담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틀임. 또한 6자회담 과정이 갖고 있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를 대체할 대안을 새로이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6자회담은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지님.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세계화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1세

- 사회: (1부) 정재경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부) 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1부 발표: 유용태 (서울대학교 교수) / 판광저(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미야케 아키마사 (일본 지바대학교 교수) / 안병우 (한신대학교 교수)
- 2부 토론: 후마 스스무(일본 교토대학교 교수) / 와다 하루키(일본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왕신성(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 천원서우(중국 연합대학 교수, 대만연구소 연구원)  
에크하르트 후스(게오르그-에커트국제교과서연구소 부소장) / 배영대(중앙일보 문화부 차장)  
오병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키워드: 동아시아사 교과서, 제국성, 동아시아, 통사, 커먼 텍스트

### >>핵심 논의 내용

- ◆ 일반용 교양서로서의 동아시아사 출간: 비교기준은 제국성, 자국이 다른 나라와 벌인 전쟁, 동아시아 서술이 진전되고 있지만 온도차가 보임
- ◆ 역사적 경험과 민주화는 정비례, 제국성에 대한 경험과는 반비례하며 진전된 정도는 한국>일본>중국 순
- ◆ 신 내셔널리즘 충격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이 동아시아사 교과서 발간이며, 교과서가 국제화되고 연계되고 있음. 생산적인 대안 제시의 일환으로 출현
- ◆ 자국사 위주의 교육은 지양하고 동아시아사의 지역을 유연하게 해야 함. 고대부터 현대까지 일관된 체제에서 통사에서 벗어나야 함.
- ◆ 근대에 들어와 커먼 텍스트들이 있었으며, 세계인식의 틀을 만들어가는데 공통의 교재가 있었음
- ◆ 동아시아사 공통교재가 두 권의 책으로 묶어 최근 발간됨.

## 아시아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 사회: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 발표: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토론: 수렌 바드랄 (몽골 외교부 민주주의 공동체 담당 대사) /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몰튼 헬퍼린 (오픈 써사이어티 연구소 선임자문관) / 아베 코우지 (일본 외무성 인권인도과장)
- 키워드: 아시아 민주주의 인권

### >>핵심 논의 내용

- ◆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및 노력 평가
- ◆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확인
- ◆ 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기존 지역 협력체 활동 평가 및 새로운 구상 운영 방향 논의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함께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경험을 신생 민주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 검토
- ◆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또는 공고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프로그램 모색
- ◆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역 협의체의 역할과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정자적 역할 추진



##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 사회: 홍승목(KOICA 이사)
- 발표: 박은하(외교통상부 국장), 왕이환(북경농업대학교 교수)
- 토론: 카라사와 마사유키(JICA 개발파트너십 실장), 김기정(연세대학교 교수)  
최진우(한양대학교 교수), 유용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키워드: ODA, 중국, 한국, 정책일관성, 무상원조, 동북아 협력, 원조 분절화, 국제규범, 중국적 특수성

### >>핵심 논의 내용

- ◆ 글로벌 공공재로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의 주요 공적개발원조(ODA)소개
- ◆ 중국의 경우 중국적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고 있다는 중국 발표자의 설명에 일본과 한국측 패널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통계기준, 주요 용어(MDGs, ODA 등) 및 규범을 사용하지 않는 중국적 특수성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문제제기
- ◆ 중국은 냉전시기 정치적, 사상적 이해 관계를 배경으로 원조를 수행하였으나 2000년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 및 동기가 중국 원조 정책의 핵심적 동기이자 목적임을 표명
- ◆ 한국의 ODA 선진화를 위해 원조의 양적 규모의 확대(특히 무상원조), 정책일관성 제고, 원조 분절화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음
- ◆ 이러한 한국측의 주장에 대해 일본 패널은 전반적인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무상원조 확대, 원조 방식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무상원조 및 물자 제공과 같은 지원이 개도국의 개발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원조 확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논리라는 점에서 일본측의 원조에 대한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발언임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중국정부는 국제 사회의 개발협력 관련 규범과 기술 가이드 라인을 준수,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한국 정부는 무상 원조의 비율을 높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원조 규범을 내재화 할 필요가 있음
-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에 있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를 위한 정책 개선, 다양한 기관이 원조에 참여하는 현행 원조 분절화 문제를 극복하여야 함

##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I

- 사회: 이대우(세종연구소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센터장)
- 발표: 카노 타케히로(일본 외무성 기후변동 과장)
- 토론: 정상화(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서창록(고려대학교 교수)
- 전체토론: 카라사와 마사유키(JICA 개발파트너십 실장), 김기정(연세대학교 교수), 최진우(한양대학교 교수), 유용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은하(외교통상부 국장), 왕이환(북경농업대학교 교수), 홍승목 (KOICA 이사)
- 키워드: 계몽된 국익과 ODA, 원조 조화, 국제개발협력분야 동북아시아 공여국간 협력

### >>핵심 논의 내용

- ◆ 한중일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 현지 사업장에서 작은 프로젝트형 협력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
- ◆ 국익점 관점에서 ODA를 추진할 경우 전통적 의미의 국익 개념에 인도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을 접목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한중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한중일 국제개발협력은 수원국 현지 사업장에서 작은 프로젝트형 협력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발전 방향의 단초를 마련하여야 함
- ◆ 국익점 관점에서 ODA를 추진할 경우 전통적 의미의 국익 개념에 인도주의, 글로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을 접목하여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한중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력이 필요.

##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 사회: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
- 발표 및 토론: 물론 헬퍼린 (오픈 쓰사이머티 연구소 선임교문: 전 미국 국방정책담당 국방차관)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요리코 가와구치 (일본 참의원: 전 외무대신)  
판 지쉬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군축및비핵화센터 부소장)
- 키워드: 북한, 동아시아 비핵화, 북한 핵개발, 북한 핵위협, 대만 핵, 양안문제, 핵역지력, Pivot Policy, Conengagement Policy, 한반도 핵전쟁, 후쿠시마, 핵안보, 원자력안전

### >>핵심 논의 내용

-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하,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부분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이는 북한이 전면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며, 북한 지도부도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핵대응의지, 북한지도부의 책임을 북한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등의 도의적인 문제, 주변 관련된 국가들이 미국의 핵공격을 승인할 것인지를 고려하면 전면적인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도발이나,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기존의 재래식 전쟁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 북한이 핵무기를 위협적인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주된 이유가 자신들의 체제를 국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함임을 고려하고, 또한 일면 경제적인 궁핍을 해소하기 위한 카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 북한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부터 먼저 협의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정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도출한 후 북한에 접근해야 한다.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만의 핵보유나 양안문제 등을 같이 논의해서는 북핵문제를 더 복잡하게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과거 94년에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것 처럼, 현재의 국면도 타결될 여지가 충분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적 지원,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경수로까지도 건설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 안정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전면 중지되어있지만 한 기정도 발전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향후 추가적인 재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개발도상국과 달리 일본에서 원자력은 점진적으로 철폐될 것이지만 핵무기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많은 양의 플루토늄 재고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어렵다.
- ◆ 중국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상쇄하는 미국의 핵역지력 확장 정책은 양분된 시각이 존재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중국은 과거 구 소련과 달리 핵보유량도 많지 않고, 핵무기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핵위협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중국은 수차례 중국의 선제 핵공격을 없을 것이고 역지의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key이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2012년 3월 개최된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예방 및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초점을 두는 유의미한 여러 구체적 조치들을 논의하였으나, 핵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는 공동의 제도를 창설하는 데에는 아직 많은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 동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고착된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을 둘러싼 상황을 해소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피터 헤이즈 나우틸러스 안보지속가능성 연구소 소장의 사회 하에 관련국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 사회: 나얀 찬다(예일대학교 세계화연구에이센터 소장)
- 발표 및 토론: 존 아이켄베리(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노다리 시모니아(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  
스타인 튀니손(전 오슬로평화연구원 원장)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장 사오밍 (북경대 국제학대학교 교수)
- 키워드: 권력교체, 중국의 전략, 미국의 그랜드 전략, 영토분쟁

### >>핵심 논의 내용

- ◆ 2012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권력교체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
- ◆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증가와 미국의 대응
- ◆ 미-중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는 향후 미-중 관계
- ◆ 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다자적 해결방안 모색
- ◆ 북한의 권력승계와 정치적 안정에 대한 전망과 대응

## [외교관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 사회: 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 발표: 김성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외교통상부 제2차관)
- 토론: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 쩌 쩌 또한 (주한 베트남 대사) / 니콜라스 띵디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 >>핵심 논의 내용

- ◆ 김성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아시아는 대외적으로는 거대 경제로서 중요성과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고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
- ◆ 하지만 동아시아에는 국가간 경제적 격차는 물론 전통·비전통 안보위협이 발생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
- ◆ 이러한 도전요소를 극복하고 동아시아공동체 건설하기 위해서 김성한 차관은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함.
- FTA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네트워크 구축
- CMIM의 규모 증대 등을 통한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화 및 내실화 추구
- 개발협력 등을 통한 동아시아 개발격차 완화
- 유럽식 단일협약체통을 통한 통합 적용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다자협약체통을 통한 협력 강화
- ◆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동아시아는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매커니즘을 완성하고, △경제통상 관계에 있어 국가간 교역과 투자 활동에 제약이 사라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함.

**브누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아시아는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왔으며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왔음을 역설. 러시아는 역내 정치, 경제 협력에 더욱 더 깊이 참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에 있어서의 경제협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주한 베트남 대사**는 동아시아 협력은 ASEAN+3 (APT) 와 East Asia Summit (EAS)라는 두 개의 주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하고, ASEAN은 동아시아 협력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 ASEAN은 APT와 EAS 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가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하였음.

**담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동아시아 협력과 관련한 수 많은 회의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한 합의가 실제적 이행되지 않음을 지적.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가 이행되고 협의한 사항이 결과를 낳으려면 성공을 바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질문을 던짐.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사회: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및 토론: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법정대학 명예교수) / 이종석(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존 들러리(연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 / 진징이(북경대학교 코리아연구센터 교수)
- 키워드: 권력승계, 북핵문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중국의 역할

### >>핵심 논의 내용

- ◆ 김정은 체제의 지속 가능성 ◆ 미국, 한국에 의한 경제제재와 북한의 대응
- ◆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김정은 체제가 곧 붕괴하지는 않을 것임
- ◆ 김정은 체제의 안정은 제도적 권력의 공고화 여부에 달림
-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행선이 아니라 연계할(linkage)수 있는 정책의 모색이 필요함
- ◆(진징이) 북한은 인적, 관념적 측면에서 세대교체 중이며 북한이 자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 중요
- ◆(오코노기 마사오) 북한 체제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부에서는 물리적인 수단보다 경제개발,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스타인 튀니스) 젊은 세대간의 상호교류 촉진, 중국과 남북간의 삼자협력
- ◆(들러리) 문화적 교류, 경제적 협력의 촉진

## 한류와 동아시아협력

- 사회: 정경문(일간스포츠 대표)
- 발표: 홍승성(큐브엔터테인먼트 대표)  
하야시 나츠오(일본 도야마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마셜(중국 코나 엠앤이 대표)  
세바스찬 팔레티(프랑스 'Le Figaro'지 서울특파원)  
최용기(커리지필름 대표)
- 키워드: 케이팝(K-POP), 아시아스타가 월드 스타, 한중일 협력, 프랑스 한류 팬 그룹투어, 내셔널리듬, 문화 침투력

### >>핵심 논의 내용

- ◆ 한류가 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 아시아 시장은 K-POP을 중심으로 단일화돼 가고 있으며, 이런 아시아 스타가 곧 월드 스타가 될 날이 머지 않았음. 그러나 한류가 뻗어갈 길이 100m라면 아직 10m도 오지 않았음.
- ◆ 한류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K-POP) 제작자들은 10년 앞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고민 중. 아시아 전체가 단일화 시장을 만들 필요. 그러려면 한중일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함.
- ◆ 마케팅 전략도 나라별로 특성화. 특히 중국 시장은 중국 내부용인 유쿠닷컴(유튜브 기능), 시나닷컴의 웨이보(트위터 기능)에서 인기몰이를 해야 함.
- ◆ 일본은 혐한류 현상이 있다지만 한국의 보도로 인해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무관심보다는 낫다. 혐한류는 장기적으로 한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 프랑스에서도 한류 팬이 2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10~20대는 일부 직업을 두고 한국으로 와서 그룹투어를 하며 한국어를 배울 정도.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일본문화를 통해 한류를 접하게 되는 경우. 한류는 아직 유럽에서 주류가 아니고 더 지켜봐야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됨.
- ◆ 10년전 한국영화 '올드보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교차하며 침투력이 강해진 작품이 나와 칸 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형 기획, 특수 효과 등의 영화만이 대기업의 지원을 받으며 일률적으로 평면화되고 수출도 크게 떨어짐. 한류의 독창성 제고해야 함.



### >>정책제안 및 시사점

- ◆ 참석자들은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 프랑스, 북미, 남미에 진출하면서 'The Asian Beauty(아시아의 미)'라고 내걸었듯 K-POP, J-POP을 나누는 대신 '아시안 팝'으로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한류가 여태까지 아시아의 문화를 알리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케이팝 시장으로만 전세계를 노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면 콘텐츠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 또 일본에선 만화, 애니메이션 원작, 소셜 게임이 유럽·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영화·음악을 공동 작업하면 대단히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공동작업을 할 때 현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언어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 예를 들어 영화 '역도산'은 한국·일본 자본이 공동 투자해 톱스타 설경구를 주연으로 했지만 한일 양국에 공동된 정서에만 집중하느라 시장 전체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했다. 반면 한국과 중국 협작한 영화 중 '삼국지: 용의 부활'이란 영화가 성공 케이스다. 기획부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작품이었다. 삼국지 원전에 충실하기보다는 '조자룡'이란 인물을 영웅화 해서 성공한 케이스로 꼽힌다. 비슷한 시기의 '적벽대전'은 삼국지 원전에 충실해 중국 현지 맞춤형 전략을 썼다. 결국 시나리오도 중요하고 정서적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 무협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정서적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 경제 · 경영

### 보안 정책의 미래

- 사회: 이길규(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박영우(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 유창하(다음 법무담당 본부장) /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토론: 정진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원장) / 조병철(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 교수)
- 키워드: 산업보안, 개인정보, 사이버보안

### >>핵심 논의 내용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의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상황에서 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방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산업보안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존립기반을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세션은 최근 해외의 산업보안 정책추진 동향, 기업보안 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개인정보의 적극적 활용과 철저한 보호 사이의 균형 추구가 필요하다.
-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의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 ◆ 빅 데이터 사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보안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 사회: 최석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레저경영원장, 교수)
- 발표: 천세전 (세중여행사 사장) / 백민서 (인바운드팀 과장)  
김이태 (부산대학교, 관광컨벤션학과) / 박충민 (큐브 엔터테인먼트 사장)  
서병기 (해럴드경제, 한류 선임기자)
- 토론: 박정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김기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박사과정)

### >>핵심 논의 내용

- ◆ 한류의 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케이팝이다.      ◆ 국가로는 대만, 중국이 한류지수가 높다.
- ◆ 남아시아에서는 영화      ◆ 중화권에서는 케이팝과 드라마
- ◆ 한류의 중심축이 영화, 드라마에서 케이팝으로 이동. 연 130%의 성장율
- ◆ 인바운드관광객 2011년 980만명, 매년 100만명씩 증가
- ◆ 다른 아시아국가 호텔경쟁력 감소, 서울(한국)은 객실료 지속 증가.
- ◆ 비즈니스 전문 여행사가 한류관광객팀 운영시작.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케이팝 한류는 대단하다. 하지만, 아이돌 중심이다.
- ◆ 해외에서 아이돌 그룹의 경쟁력 충분하다. 남미와 유럽은 이제 점화, 발화단계
- ◆ 신승훈의 발라드 성공-마케팅/독립음악적 성격- 각 장르별 마케팅 필요.
- ◆ 보는 음악과 함께 듣는 음악의 성공이 요구됨.
- ◆ 방송국의 손가락 없기 전략이상의 기획력 필요-시작단계지역에서의 역할 필요
- ◆ 공인 에이전시 제도 도입되어야.(에이전시와 기획사의 분리...)
- ◆ 케이팝 인바운드 관광객 만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되어야.(예, 음식과 언어문제 심각)
- ◆ “찾아가는 케이팝”공연, 방송, 신문, 뉴미디어/ “초대하는 케이팝”공연, 관광, 2차 콘텐츠: “초대하는 케이팝”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10%의 관광객은 한류스타 때문에 왔다... : 스토리와 공감대 필요! 큐브 스튜디오 IN 한류스타거리: 청담동 한류스타 거리 6월 조성 예정(SM-CUBE-JYP를 잇는 거리 조성) - 연습, 공연, 중계연결.
- ◆ “스토리를 히스토리로”      ◆ “문화패권주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 ◆ 케이팝은 문화관광과 연계되어야 함.
- ◆ 정부 각 기관과 연예기획사의 결합, 여행사의 상품화 가능성.

##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 사회: 허정옥(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발표: 강태선(㈜블랙야크 회장)
- 토론: 신호상(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키워드: 블랙야크, 아웃도어 브랜드, 글로벌브랜드, 제품혁신, 차별화 전략

### >>핵심 논의 내용

아웃도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블랙야크’는 정통 등산 아웃도어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제품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글로벌 대표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블랙야크의 브랜드경영 핵심전략과 성장동력에 대해 토론하였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블랙야크는 ‘히말라야’를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는 히말라야 등정을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노하우를 제품개발에 녹여냄으로써 소비자에게 진정성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블랙야크가 국산 브랜드이지만 등산 장비 전문 브랜드로서의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 ◆ 이러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는 치열한 아웃도어 시장에서 블랙야크가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독자적인 고객층을 구축해 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블랙야크가 국내 산 브랜드임에도 그 이미지가 히말라야를 강조하다 보니 한국의 명산(특히, 강 회장의 고향인 제주도의 한라산)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 ◆ 이에 향후 블랙야크는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과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히말라야'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면,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국내의 명산으로 시선을 돌려 대한민국 대표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사회: 안세연 (서울대학교 장수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 발표: 박제화 (동화약품(주) 대표이사 부회장) / 강민수 (에쓰-오일 주식회사 상무)  
이경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조동성(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토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양오석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 키워드: 장수기업, 지속가능경영, 기업가치 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핵심 논의 내용

지난 수 십 년간의 주주 가치 중심 경영에 따른 기업간의 치열한 수익 추구 경쟁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수명을 점점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방안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복지 향상과 환경 보존에도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주요한 역할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전세계 장수기업의 교훈으로부터 기업과 사회가 공존, 번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언하고, 나아가 한국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사회적 책임 실천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였다.

- ◆ 기업의 가치를 과연 재무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 ◆ 오래된 기업이 과연 장수 기업인가? 장수기업의 조건은?
- ◆ 기업이 향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 콘텐츠

- 사회: 김옥량 (옥량문화재단 이사장)
- 발표: 황푸수이 (룽푸그룹 이사장) / 리 주위안 (중국국제여행사 국제회의전담유한공사 총재)  
강한섭 (서울예정대학교 교수) / 핑후이 (중국영화펀드 총감) /  
리팡루이 (징주티벳의약그룹 사장) / 이장우 (제주 민거나말거나박물관 사장)
- 키워드: 멀티관광산업, 관광 브랜드, 한중문화동맹, 자본과 콘텐츠의 결합

### >>핵심 논의 내용

- ◆ 특정한 지역의 관광 상품을 브랜드화 이후 다른 지역으로 카피 및 전파 가능
- ◆ 거대한 중국 MICE 시장을 대비하여 한국의 MICE산업 경쟁력을 특화시켜야 함
- ◆ 밀접한 이해관계를 엮혀온 한중 양국은 문화동맹을 결합하여 문화적 협력 필요
- ◆ 훌륭한 각본 및 제작진을 보유한 한국영화산업과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 간에 영화펀드를 통한 합자 영화 제작은 미래 한중 영화산업의 협력 트렌드임.
- ◆ 제약회사를 비롯한 제1산업의 선두업체들도 힘을 합쳐 지역관광사업을 진출할 수 있음.
- ◆ 세계적인 트렌드를 부응하면서 새로운 형태 및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창조시켜야 하는 것은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 지침임.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관광 상품의 브랜드화 필요. 성공요인을 표준화시켜 타지역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필요.
- ◆ 문화와 자본의 적절한 결합 및 협력 필요.
- ◆ 한중 양국의 문화적, 사회적 동맹과 공감대 형성 필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켜야 협력할 때에 있어 성공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음.
- ◆ 거대한 중국 MICE시장에 대비하여 한국의 특유한 경쟁력 구축 필요.
- ◆ 정보화 시대를 추월해서 스마트 시대가 도래되었으며, 이에 대응하기에 관광산업도 혁신을 이뤄야 하고, 스마트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적인 취향을 알맞게끔 만드는 개성이 있는 테마 관광 상품에 대한 개발도 미래 관광산업의 발전 추세임.

##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전략을 읽는다

- 사회: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 발표: 이의평 (중국 인민대학 교수)
- 토론: 장달중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권순기 (중한기업협회 회장)

## >>핵심 논의 내용

- ◆ 이의평 인민대 교수 - 중국경제의 배경과 발전추이 및 문제점 분석
  1. 당면한 중국경제의 배경 및 여건
    - (1) 세계경제는 회생단계로 중국에 수출에 호재로 작용, 중국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태
    - (2) 중국, 미래의 경제성장패턴은 반드시 혁신과 제품 고부가치화에 역점
    - (3) 중국, '포스트 4조 RMB'시대 진입, 각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적 혜택이 아닌 자생력 제고에 올인
  2. 거시적 경제 발전추이
    - (1) 중국 GDP 연 성장률이 8% 안팎의 발전을 보일 것으로 추정
    - (2)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4% 억제목표, 농산물의 유효공급문제를 해결
    - (3) 부동산 문제의 만단의 조치
    - (4) 중소 민영기업 융자난 문제
    - (5) 미래 거시경제 정책 변화추이
  3. 경제성장패턴 전환에 의한 선순환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 (1) 경제성장패턴 전환 절실
    - (2) 단호한 의지로 시장경제 체제 완비 절실
    - (3) 민영기업/사영기업 보호 강화 절실
    - (4) 소득격차 확대문제를 해결하여 공평과 정의를 보장, 다수인의 개혁성과 공유를 실현
    - (5)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은 문화 구축 절실
- ◆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
  - 고객으로서의 중국의 등장이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변수이다.
  - 중국이 비스마르크처럼 될 것인가 이다.
  - 동아시아의 후발고도산업국가들의 성공적인 민주화 과정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중국과 같은 경쟁적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자유로운 민주적 정치적 잠재력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 남북문제 등에서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지도부의 인식을 버려야 한다.
- ◆ 권순기 중한기업협회 회장
  - 한중수교 20주년의 해에 아태지역 협력발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 중국은 WTO가입 이후 급성장하고 있으며 수출에서는 1위 수입은 2위이다.
  - 중국의 경제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일본과 한국에는 더욱더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고 무역액이 2,500억 달러 금년엔 3,000억을 넘어설 것이다.
  - 지난 수십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했는데 속도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성장을 조절해야 한다.

-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 중국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면을 야구공처럼 꿰매놓은 체제인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이 될 것이다.
  - 내년 세계의 새로운 세계지도부가 생길 텐데 중국이 전환기관리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정치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중국의 국제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 정부주도 체제에서 시장이 중시되는 체제로 가는데 시장은 천사이기도 하고 구세주 역할을 하지만 오래 체류하면 폭군이 될 것이라는 격언을 교훈 삼아야 한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중국은 G2의 규모를 가질 만큼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질적 성장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아직도 미국과의 격차가 크고 내용면에서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 중국은 앞으로 미래의 경제성장패턴을 혁신과 제품 고부가가치화에 역점을 둘 것이며, 각 기업들은 당국의 정책적 혜택이 아닌 자생력 제고에 올인할 것이다. 그것을 통한 경제성장패턴과 시장경제 체제 완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 ◆ 5천불 수준의 경제진입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슈는 사회적 이슈로 정치적 이슈로 넘어가는 전환기이다. 이는 세계적인 정치리더십의 교체시기에 동아시아의 평화체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에서 중국의 방향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기에 앞으로의 모든 국제적인 정책과 전략부분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을 고려하여 공생의 한중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 사회: 김주남 (서울과학교합대학원 경력개발센터장, 前 KOTRA 북미지역 사장)
- 발표: 김종식 (타타대우상용차 대표이사 사장)
- 키워드: 신뢰경영, 타타대우상용차, Trust-Based Management of Tata Group

### >>핵심 논의 내용

- ◆ 경영이란 그 기업의 경영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개성이라고 할 수 있음. 즉, 경영자가 어떠한 철학을 기반으로 있는지를 그 기업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 인도의 타타그룹은 창립자의 경영 철학이 140여 년에 걸쳐서 현재까지 '신뢰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 이윤의 절반 이상이 사회에 환원되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 이러한 기업의 경영 철학은 한국에 진출한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발현되고 있음.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인도 타타그룹과 한국의 타타대우상용차 사례를 통해서 기업 경영자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신뢰경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즉 기업(경영자), 내부구성원(직원), 사회(국민/고객) 등 각 이해관계자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생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 기업의 신뢰경영 사례 개발 및 실천 전략 제안: 기업 자선(charity) 차원의 접근이 아닌 사회 공유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기업 저변 의식의 변화의 필요. 이를 위한 국내 기업의 다양한 신뢰경영 사례를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
  - ◆ 인도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상이한 문화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뿐만 아니라 인도의 우수 기업과의 쌍방 교류를 위한 포럼, 박람회 등의 장 마련

##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 사회: 하수경 (산업정책연구원 부원장)
- 발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신우창 (국순당연구소 소장)  
에린조 (파슨스디자인스쿨 디자인경영학과 교수) / 이수진((사)제주올레 비주얼커뮤니케이션 실장)
- 키워드: 한류, 전통술, 디자인 혁신, 브랜드 세계화, 제주 올레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핵심 논의 내용

- ◆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를 통한 한류의 발전방안
- ◆ 한국의 술, 국순당의 세계화 전략
- ◆ 디자인 혁신을 통한 국가 브랜드 발전 전략
- ◆ 제주 올레가 걸어온 길과 미래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것을 바탕으로 보편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 해외에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스토리를 통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소비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 브랜드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브랜드가 되어야 함.

##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 전략

- 사회: 박성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 국장)
- 발표: 박성필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콜린 오키프 (오라클 마케팅본부 상무)
- 토론: 고영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경영사례연구센터장) / 김선동 (SBS 기획팀 부장)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실장) / 이동현 (CJ E&M 유통사업부 부장)

## >>핵심 논의 내용

- ◆ 박성필(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IP Portfolio management / Challenges to Korean Media & Entertainment Enterprises'
- ◆ 윤성천(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과장): 'FTA 글로벌 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과제'
- ◆ 콜린 오키프(오라클 마케팅본부 상무):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for media & entertainment'

##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 애널리스트의 경쟁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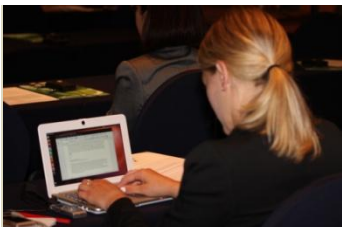
-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발표: 윤영목 (국민연금 운용전략실장) / 김영익 (한국창의투자자문 대표)
- 토론: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호진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 위원회 상무) /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핵심 논의 내용

- ◆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변했다.
- ◆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큰 사이클의 변화를 제시하는 보고서이다.
- ◆ 특히 비슷비슷한 성격의 리포트는 투자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 ◆ 이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특이한 분석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가 펀드매니저들이 선호한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리서치 센터장 및 펀드매니저들은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갖춘 리포트를 원하고 있음
- ◆ 또한 독특한 뷰를 갖춘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와야 애널리스트들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 나운봉 (경희대학교 교수)
- 발표: 김태영 (필립스코리아 대표) / 김학진 (고려대학교 교수) /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 토론: 신철호 (성신여자대학교 부총장)
- 키워드: *브랜드 전략, 브랜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업의 브랜드 전략 사례, 패션그룹 형지, 필립스, 뉴로마케팅*

### >>핵심 논의 내용

- ◆ 필립스의 브랜드 전략 및 기업의 핵심 가치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고, 철저한 인간중심을 근원으로 하며, 이노베이션을 통해 인간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철저히 준수되어지고 있음
- ◆ 필립스의 핵심사업은 헬스케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조명 부문으로 크게 3가지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음
- ◆ 필립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근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 뉴로마케팅의 개념에 대한 설명과 실제로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기 전에 소비자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fMRI(functional MRI)를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자체를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도 활용하기도 함
- ◆ 뇌과학이라는 연구는 소비자들 스스로의 심리를 잘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이며, 이 연구의 결과물들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임
- ◆ 패션그룹 형지의 성공사례는 브랜드 사업에 대한 신념과 패션사업의 고부가가치화 주력, 차별화를 위한 CEO의 남다른 생각과 노력을 한 것이 성공 요인임
- ◆ 역발상 전략으로 유통의 개념에서는 백화점 유통 중심을 소비자 중심의 가두유통으로의 브랜드 확산 및 지방상권에서 중심상권으로 전개하였고, 중장년층을 위한 한글 간판 등의 노력을 하였음
- ◆ 사이즈도 입체 패턴으로 개발하였고, 여성캐주얼에 골프복을 융합, 화사한 컬러감과 젊은 스타일을 제시 하였음
- ◆ 대리점주 및 판매사원을 만족시켜 고객을 “FAN”으로 만들었고,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 국내 브랜드 및 글로벌 브랜드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새로운 브랜드의 패러다임을 도출 할 수 있었음
- ◆ 새로운 마케팅 분석기법에 대한 모색으로 뉴로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음
- ◆ 패션그룹 형지의 사례는 전형적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지켰고, 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철학으로 항상 일관되게 이를 지켜온 것이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됨
- ◆ 필립스의 사례를 통해서 필립스의 기업 철학인 인간 중심의 가장 근원적인 개념을 고수하면서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임을 보여주었음
- ◆ 국내 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와 새로운 마케팅 기법에 대한 소개를 통한 마케팅 및 브랜드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좀 더 인간 중심적이고, 좀 더 기본에 충실한 기업들이 성공한다는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

##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

- 사회: 최은수 (MBN 시사기획부 부장)
-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원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 임정택 (듀폰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 키워드: *지속경영보고서, 지속경영 표준, 글로벌 트렌드, 기업의 지속경영*

### >>핵심 논의 내용

- ◆ 기업에게 경제, 사회, 환경의 CSR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경영 보고 가이드 라인인 BEST
- ◆ 재무적 성과 뿐만이 아닌 비재무적 성과인 사회적 기업활동의 보고가 중요시 되는 글로벌 트렌드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 유한킴벌리의 지속경영은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과 가족친화경영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함.
- ◆ 듀폰 코리아의 지속경영에는 핵심가치인 안전과 건강, 환경적 책무, 윤리경영, 인간 존중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서는 법제화된 지속경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이는 글로벌 트렌드이며, 이를 위해 기업, 정부 및 민간단체의 협업을 통한 BEST 가이드 라인의 공유 및 규정으로의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적합한 지속경영 보고서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함.
- ◆ 산업정책 연구원과 연계한 지속경영사 프로그램을 국가 공인 자격증화 하고, 기업에 지속경영인증사 자격증을 필수적 요소로 제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I

- 사회: 김재원((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 발표: 김태곤 (IPS 지속경영연구센터 전문위원)/김동덕 (SK하이닉스㈜ 지속경영팀 수석팀장)  
신관수(기아자동차 CSR 환경경영팀 부장) /유원무(㈜풀무원홀딩스 바른마음경영실 실장)/한상철(KT CSR사무국 차장)
- 키워드: 지속경영, 지속경영보고서, CSR, 환경경영

## >>핵심 논의 내용

- ◆ 본 세션은 우리나라에서 CSR에 힘쓰는 대표적 기업 4개의 사례를 들어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SK 하이닉스의 경우, 전자 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준 중 금속 재료의 원산지 표기, 근로시간 및 감봉규정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비할 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 대비하고 있다.
- ◆ 기아자동차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CSR을 진행해 왔으나 DJSI 평가에 의하면, 조직원의 직업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CSR 자체에 대한 재정의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mobility와 challenge라는 두 공유가치를 설정하고 기업의 핵심역량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 ◆ 풀무원의 경우 창업자의 정신이 그대로 SR의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이웃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을 두 가지 사회적 책임의 개념으로 삼고 사회적 책임을 기업의 성격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기업활동 그 자체와 맞물리게 진행하고 있다.
- ◆ KT는 통신 분야에서 세계 1위의 CSR 실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독립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기업의 핵심적 보고서이며 기업의 경영이란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사모펀드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사회: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발표: 이제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핵심 논의 내용

-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액수로 30조원을 넘어섰다
- ◆ 사모펀드 시장은 해외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 ◆ 사모펀드는 금융사 내부에서 하는 것, 금융지주차원에서 별도로 만든 것, 그리고 독립 사모펀드로 나뉜다.
- ◆ 이중 급성장하는 것은 독립 사모펀드이다.
- ◆ 최근 들어서는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 ◆ 헤지펀드 역시 성장이 예상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사모펀드의 규제완화 필요하다.
- ◆ 사모펀드의 다양한 해외진출은 큰 기회지만 한국과 다른 여러 법적 제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 ◆ 헤지펀드 역시 성장한다. 하지만 당분간은 자금 모금의 어려움, 운용인력 부족으로 힘들 것이다.

### 물류 산업 & 유통 채널

- 사회: 김혁규(㈜이디디홀딩스 회장, 전 경남도지사)
- 발표: 양타오(Ohill International.(U.K) Ltd. 사장) / 무창(청도엔젠회사) / 조해철(연합성세 북경국제무역유한회사 사장) 이상조(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 박수전(이스타항공 사장)
- 토론: 리빙경 (산동성태방부식과학유한회사 회장) / 우버터 (미국중미경제무역촉진회 회장)
- 키워드: *한중 항공업협력, 중국 물류시장의 성장단계, 중국 사치품 시장의 성장, 중국 유통 산업의 초기단계*

### >>핵심 논의 내용

- ◆ 물류 유통채널은 사회와 경제의 생태계, 즉 기업의 발전에 커다란 핵심 영향을 미친다.
- ◆ 중국의 물류는 선진국가의 물류시스템과 비슷한 연구가치가 있다.
- ◆ 새로운 인터넷, 전자기술은 물류산업에 도입해야 큰 발전을 기여할 수 있다.
- ◆ 중국의 유통산업 비용은 기형적으로 많다. 유통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이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과제임.
- ◆ 중국의 유통과 물류는 아직 초기 단계며, 중국 서부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데 큰 영향을 기여할 수 있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새로운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기술과 기존의 산업간의 거버넌스에서 기대될 수 있다.
- ◆ 중국의 프랜차이즈는 현재 초기 단계이며, 한국의 기업들의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 ◆ 중국의 유통산업은 현재 산업화의 발전 초기이고 한국의 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현재의 시점을 잘 활용해야 향후의 중국 공략과 대중국 사업성공이 가능하다.
- ◆ 한중간의 항공, 항만의 협력과 자유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기대되면 물류와 유통의 개방이 경제의 개방에 핵심 역할을 미칠 수 있다.
- ◆ 중국의 시장은 아직 폐쇄적이나 향후 개방이 기대. 개방을 통한 LCC 항공사 육성하면 양국간 발전 기대
- ◆ 중국 경제가 새로운 금융위기를 이기려면 서부와 동부지역 연결하는 선진화된 물류 유통 네트워크 필요
- ◆ 중국의 내륙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향후 LCC의 합작은 기대될 수 있다.

### 지식 재산권과 여성

- 사회: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 주제발표: 김재우((사)한국고치협회 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발표: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 이인실(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김명자(자연과 인삼 대표) / 이금(㈜곰두리푸드웰 대표)
- 키워드: *여성, 자기변혁, 발명, 창조*

### >>핵심 논의 내용

- ◆ 자기변혁을 꿈꾸면 청춘이다. 미래는 창조의 시대이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미래가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항상 성찰하며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두고 내일을 위해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자.
- ◆ 발명은 출산 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경쟁력 확보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의 여성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학력자이다.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산업화했을 때 굉장한 경쟁력을 가진다. 미래시장은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편안함을 주는 시장이다. 여성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다.
- ◆ 창조적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좋은 아이디어와 창조적 실천이 나의 권리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법률적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지식을 지식재산권으로 해야 한다. 애플의 90% 이상이 무형 자산이다. 여러 가지 특허 분쟁은 앞으로의 우리가 이 중대성을 알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 경제와 기업의 과제

- 사회: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 발표: 어운대 (KB 금융지주 회장)
- 토론: 문국현(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윤창현(금융연구원 원장)
- 키워드: 지속경영보고서, 지속경영 표준, 글로벌 트렌드, 기업의 지속경영

### >>핵심 논의 내용

한국은 1970년대까지 세계 최하위의 경제빈국에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 2012년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는 1% 부자들이 99% 가난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세계 경제의 트렌드 속에서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의 냉혹한 자본주의 3.0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4.0 시대로 대전환기를 맞아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와 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 지세화(Localization) - 세계를 움직이다

- 사회: 강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지속경영교육원 원장)
- 발표: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 미무라 신고 (일본 아오모리현지사) /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 /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핵심 논의 내용

- ◆ 조동성 교수: 지세화의 개념 및 패턴
- ◆ 미무라 신고 아오모리현 지사: 아오모리현의 식량 관관 분야 브랜드 전략
- ◆ 강신겸 전남대학교 교수: '지세화 시대, 창조적 문화관광 전략'
- ◆ 소진광 가천대학교 교수: 경영학측면의 지세화가 아닌 공공분야에서의 지세화
- ◆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지세화'(Localization) 시대의 도래를 맞아 각 도시의 특성을 십분 살려 성공적인 지역혁신을 이끈 국내외 사례를 관광레저도시와 이벤트레저도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합의점 제안

##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 사회: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중앙대학교 석좌교수)
- 발표 및 토론: 엔 케이 싱 (인도의회 의원, 전 재정부장관) / 임원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 마이클 헬백 (한국 스탠다드차터드은행 부행장) / 송 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부장)
- 키워드: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재벌세, 재벌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시장경제의 복지패러다임

### >>핵심 논의 내용

- ◆ 독일과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보면 유로존의 위기가 복지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이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건전한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정치인들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의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 ◆ 시장경제 내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한국 재벌을 규제하기 위한 재벌세 소위 버핏세의 도입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 CSR 개념을 통해 기업의 민간부문 복지 지원의 확충과 인적 자원 개발에의 투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런 조치들을 통해 좀 더 균형 잡힌 기업 구조와 소득의 분배를 실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 일정 부분을 CSR로 책정하게끔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 ◆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거나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단순히 영세사업 진출을 막거나 세금을 올리는 등의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
-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에도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20세기 후반 한국을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이끌었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모델은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실업문제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여야정당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경쟁적으로 공약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 모델은 최근 유로존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함과 더불어 지양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세션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지를 외금융 및 재정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이 신중한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추구해야 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포퓰리즘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들은 CSR관련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강제로 부과하는 등의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익의 일정부분을 CSR로 책정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 사회: 치우용 (환구기업가 사장)
- 발표: 황용이 (귀주마오타이주업운영관리유한공사 회장) / 니제 (녹원 자동차그룹 회장) / 송귀성 (산동산태그룹 회장) / 한성 (즈바이 공관회사 회장) / 송은경 (췌베세가 대표이사, 국가브랜드 위원회 위원) / 김희남 (췌이디디홀딩스 대표이사)
- 토론: 전영준 (태진인터내셔널 회장)
- 키워드: *브랜드 문화, 브랜드의 산업간 융합, 전기자전가 시장의 새로운 단계, 환경보호와 기존산업의 update, 럭셔리 브랜드의 구축, 중국의 명품시장 발전 단계, 새로운 장인정신*

### >>핵심 논의 내용

- ◆ 브랜드 문화는 브랜드의 혼이다. 새로운 영업방식 도입 필요하고 선진화된 인터넷 기술과의 융합은 브랜드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 국가의 브랜드와 지역의 브랜드는 제품의 브랜드에 큰 영향을 미친다.
- ◆ 브랜드 경영은 가치사설에 따라 구축해야 성공 할 수 있다.
- ◆ 브랜드를 통한 기업가치의 창출은 브랜드 경영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 ◆ 중국의 명품시장을 잘 활용하면 한국 브랜드의 명품화는 가속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 ◆ 품질에 목숨으로 여기는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 아시아 자체의 명품 개발의 중요성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 기존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은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필요. 새로운 운영방식은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영향
- ◆ 브랜드는 위치한 곳에 따라 지역 이미지와 국가 이미지의 성격을 띤다. 기업의 브랜드의 발전은 국가의 브랜드와 지역의 브랜드 발전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 ◆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자전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을 기능의 융합이 필요하다.
- ◆ 환경 오염에 대한 방지와 환경에 대한 보호는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 ◆ 농업의 태양광 사용은 기존 기술을 기능에 따라 새롭게 구성하고 이 기능이 필요한 산업에 확장하는 좋은 사례이다. 기술 바운더리는 점점 없어지면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 한국 기업은 럭셔리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국가 및 지역브랜드 발전과도 연관.
- ◆ 중국 명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유럽과 미국의 명품들이 중국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데, 한국의 브랜드는 빠른 속도로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서 중국 시장을 5년 내에 공략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과 판별력이 강해짐에 따라 한국 브랜드 명품화는 중국 시장 발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 ◆ 브랜드 성공의 핵심은 장인 정신 및 소비자 감동이다.
- ◆ 문화마케팅은 효과적인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므로 기존과 차별화 될 수 있다.
- ◆ 서양 문화의 영향보다는 아시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 사회: 이창운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발표: Li Li (장안대학 교수) /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 권창기(울산발전연구원)
- 토론: Li Li (장안대학 교수) /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  
권영인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 서중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키워드: 중국고속철도, 한국고속철도, 지역파급효과, 사회경제적 효과

### >>핵심 논의 내용

- ◆ 고속철도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효과분석
- ◆ 고속철도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지역개발 효과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고속철도 건설시 비용편익 분석에 기인한 면밀한 분석(경제성 등) 필요
- ◆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고속철도 건설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시행방안 모색 필요
- ◆ 사회경제적 효과 입증된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 도모 위한 심도있고 지속적인 연구 필요
- ◆ 고속철도 건설과 연계한 한·중 양국 상호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노력 필요
- ◆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방에 따른 한반도와 중국 대륙과의 고속철도 상호연계방안에 대한 고려와 준비 필요

##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과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회: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 발표: 고미야마 히로시(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
- 토론: 김도형 (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후나토 요시노리 (아시아얼라이언홀딩스 대표) /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 >>핵심 논의 내용

- ◆ 고미야마 히로시(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이사장)
  1. 21세기의 현재 상황은
    - (1) 유한한 지구와 인구 증가
    - (2) 고령화 사회
  2. 일본은 어떻게 해왔는가?
    - (1) 일본의 에너지 위기 및 극복 노력
    - (2) 삶의 질적 향상 추구
    - (3) 에너지의 재활용 및 임업의 부활 등
  3. 플래티넘 사회 (Platinum Society) 비전 제시
    - Ecological
    - Participated by all including seniors
    - Abundant in job opportunities
    - Self-sustaining with resources
    - Spiritual happiness and rich in matter
- ◆ 김영호(단국대 석좌교수)
  - 로마클럽의 limit of growth에 대응해서 beyond the limit를 어떻게 이노베이션으로 극복 할 것인가
  - 일본의 경험으로 모델을 가지고 세계 경제에 Best Practice를 세계와 공유 필요
- ◆ 김도형(동서대학교 객원교수)
  - 일본 에너지 조사사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35%로 유지하자는 시나리오가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보면 풍력 12%이다. 하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풍력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검토 필요하다.
  - 일본이 지구 온난화 가스배출량 25% 감축을 하면서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5% 감축은 일본 산업계에서 논란이 많았다. 업계 경쟁력 감소까지 연결 될 수 있다. 현재 엄청난 이해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본정부의 정책 방향의 선택 방향이 한계가 있다. 고용 확보에 한계가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농림 수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저생산성 산업에 대한 개방이 늦어지고 있다.
  - 플래티넘 소사이어티를 지탱할 세대가 부담이 커지면서 세대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 ◆ 후나토 요시노리 아시아얼라이언스홀딩스 대표: 중국과 병원 등의 민영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및 일본의 패션 및 서비스 사업을 중국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 조우진 다마대학교 교수: 환경 기술 문명사적 관점에서, 플레티넘 사회는 지방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진행 한다는것에 주목해야 한다. 지역대 지역을 통해서 아시아 이노베이션이 되었으면 한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비관주의는 자연이고, 낙관주의는 의지이다(Passivism is Nature, Optimism is Will)”.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인공물의 포화, 해수면의 상승 등의 환경 및 경제 위기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의 우리들은 경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은 서서히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과 삶의 질까지 고려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 정부가 주도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술적 이노베이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비전을 가지고 낙관주적인 비전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로마클럽의 limit of growth가 아니 beyond the limit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교훈 삼아 한국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중 합작 펀드 결성 및 운용 방안

- 사회: 이상기 (북경 GNS 유한공사 회장, 차이나매거진발행인)
- 발표 및 토론: 한빙 (베이징 H&J 법무소 주석) / 추이밍 (원천지분투자관리 유한회사 파트너)  
짱핑 (지우딩 캐피탈 투자총감독) / 탕샤오단 (SILVERSUN그룹 이사장)  
이상문 (SMHEDGE CEO) / 양인모 (KTB투자증권 이사)
- 키워드: 한중 합작펀드, 사모펀드, 중국 금융시장, 중국 증권법

### >>핵심 논의 내용

- ◆ 중국의 사모펀드 급속성장 및 시장 잠재력이 아직 큰 것으로 봄
- ◆ 한국을 비롯한 해외펀드회사와 협력하는 것은 중국 사모펀드는 해외 시장에 진출 할 때 있어 많이 선택하는 경로라고 볼 수 있음. 합작펀드의 미래가 밝음.
- ◆ 한중 양국간의 문화적 차이와 관련 법률체제 상의 등 문제로 합자펀드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될 수 있음.
- ◆ 한중 합작펀드의 발전은 다른 서구 지역과의 합자펀드의 경험을 잘 참고해야 함.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한중 합작펀드를 결성할 때에 있어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한중 양국의 법률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펀드회사는 상대방 국가의 증권법과 합작펀드에 관련된 법률규제를 확실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 ◆ 한중 합작펀드를 운영할 때에 있어 주의점은 서로간의 문화적이나 정서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간의 오래된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으며, 서로와 자신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윈-윈 전략을 추구해야 하며, 서로간의 갈등과 충돌을 대화로 풀어나가야만 합작펀드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 ◆ 마지막 한중 합작펀드는 투자할 때 우수한 한국기업이나 중국기업, 아니면 외국기업을 선정할 때에 있어, 합작 파트너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서로간의 의사충돌을 감소시키면서 공동이익을 극대화시켜야만 합작펀드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은데 적절한 검토와 심중한 결정을 필요하다.
- ◆ 한중 합작펀드의 합작파트너 간은 서로간의 책임과 이익배분을 명확히 나눠야 하며, 리스크와 고수익을 같이 공유해야만 합작펀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 CSV(공유가치창출) - 글로벌 기업의 성공조건

- 사회: 김기용(카길코리아 한국대표 회장)
- 발표 및 토론: 김영기 (주식회사 LG 부사장) / 민복기 (EXR코리아㈜ 대표이사)  
이영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 채은미 (페덱스 코리아 지사장)
- 키워드: 공유가치창출, CSV, (Creating Shared Value)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핵심 논의 내용

- ◆ 과거 재무성과에만 치중하던 기업들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함
- ◆ 이로 인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외부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비용과 대가를 기업에 전가하여 위기를 초래함
-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외부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개념에 집중하기 시작함
- ◆ 이번 세션에서는 공유가치창출로 이어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 사회: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발표: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 자원 실장)
- 토론: 황주호(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 / 신정식(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핵심 논의 내용

전 세계는 바야흐로 에너지 문제에서 어느 한 국가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국의 경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비롯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변동되는 석유가격과 수요량 또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쓰나미로 일어난 원자로 사고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위기의식은 갈수록 고조되어 가고 있다.

특히,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자원 독점에 대한 야망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경제의 위기와 전망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한국 경제의 미래 에너지정책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 국가경쟁력의 글로벌 트렌드 -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 효과

- 사회: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발표: 이배용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 토론: 김재현 (건국대학교 교수) /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이사)
- 키워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브랜드, 국가브랜드, 사회적 경제 협동, 협력지속가능성, 자율, 자립 지식과 문화교류의 장

## >>핵심 논의 내용

세계화 시대는 국가와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시대이며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와 지역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게 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국가와 지역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현대사회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의 브랜드 자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브랜드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국가, 지역 브랜드의 관리 및 육성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경영과 지속가능성을 사회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등 다방면으로 접근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 사회: 김형진(삼정 KPMG Healthcare Group 상무)
- 발표: 윤인모(㈜닥터서비스 유니메디성형외과 대표) / 이명호(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최재훈(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전무) / 홍경표(KT G&E부문 기업F센터 상무)
- 키워드: 글로벌 의료산업/의료서비스, 의료산업생태계, U-Health,, 디지털 병원, 의료-ICT 융복합

## >>핵심 논의 내용

세계 각국의 소득증가 추세, 초 고령화 시대의 진전,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발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고부가가치의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은 산업간 융복합화를 통해 신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 금융, 교육, 통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확충에도 파급효과가 높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부가 서비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의 융복합화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보았다.

-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 ◆ 의료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 개선방향
-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U-health
- ◆ 의료 시스템 혁신을 통한 디지털 병원 구축 및 수출
- ◆ 의료-ICT 컨버전스를 통한 의료산업의 서비스 혁신

## 아시아의 미래 전략 - 글로벌리더십, 위기극복의 길을 찾다

- 사회: 한석희 (린디자인아시아 대표)
- 발표: 김대곤 (오방리더십센터 원장) / 김선화 (에프비솔루션즈 대표이사) / 김용언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본부 부장) / 이상호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전공 교수) / 이영기 (한국철강 본부장) /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키워드: 미래 전략, 위기극복, 글로벌리더십, 아시아

### >>핵심 논의 내용

- ◆ 유럽연합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본은 2011년 자연 재해 이후 경제적 침체를 겪고 있음
- ◆ 미국은 여전히 강국이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님
- ◆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은 세계의 소비자로의 역할 전환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음
-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경제, 정치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 본 세션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아시아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분야별 전문가가 각 분야에서 바라보는 아시아의 현상에 대한 진단, 미래 전망 등을 다루고 있음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새로운 가치의 리더십이 필요함: 서구식 리더십에서 아시아식 리더십으로 전환이 요구됨
- ◆ CEO형 리더에서 CSO형 리더로 진화해야 함
- ◆ 아시아의 과거 걸림돌을 디딤돌로 전환해야 할 것임
- ◆ 언어, 화폐, 문화, 교육, 환경에 관한 아시아의 리더십 소스를 개발해야 할 것임



## 환경

###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 사회: 김희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팀장)
- 발표: 조천호 (국립기상연구소 기후연구과장) / 한기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 김용현 (제민일보 기자)  
윤원태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장) / 최광용 (제주대학교 교수)
- 키워드: 기후변화, 불확실성, 기회요인, 위기요인, 미래대안, 기후변화 대응도시

#### >>핵심 논의 내용

- ◆ 기후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인간은 위험사회에 살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 기후변화시대에 산업별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을 살펴보고 미래 대안을 모색해본다
- ◆ 기후변화 대응도시로서 제주의 가능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향후 역할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산업혁명 이후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기후변화 문제가 대두되었고 1970년대 이후부터는 급속한 산업활동 팽창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구환경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다소나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 ◆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각각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더욱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국내적으로는 기상청을 비롯한 기후 서비스 기구를 강화하여 이를 산업주체, 지역주체, 학계/연구소 등과 적극 연계한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신성장 동력으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 ◆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와 기술개발 관련하여 세금혜택 및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범국민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 ◆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과거엔 개도국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리우+20)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로 변모했다. 한국은 '리우+20' 협상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간 조정에도 앞장서고 있고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 올해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쌓아온 글로벌 현안에 대한 중재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 또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경험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리우+20' 회의에서 협력안을 이끌어내는데 가교 역할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다.
- ◆ 또한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EACP)을 추진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한국에 설립될 예정이다.
- ◆ 이와 같이 한국은 특별한 과거경험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경제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 사회: 전용욱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대학 부총장)
- 발표: 김명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前 환경부장관)
- 토론: 피셔 알렉산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행정관리국장) / 양선이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부 찬 스리(캄보디아 관광부 계획개발과 사무관)

#### >>핵심 논의 내용

- ◆ Green과 Growth는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상생되어야만 함.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자원 중 에너지, 식량, 물이 3대 전략적 자원임, 이를 위해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

- ◆ 에너지 생산은 전력생산이 가장 중요한데, 전력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중요함. 전력에서의 소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간 협력이 매우 중요함. 현재는 스마트그리드에서 수퍼그리드로 변화해 나가고 있음.
- ◆ 수퍼그리드는 유럽과 아랍을 연결하는 효율적 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위한 네트워크임. 국가간 협력을 통한 수퍼그리드로의 진화가 진행 중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음. 동북아 국가간의 에너지 협력 중요하며 이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원자력 사태로 인하여 에너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음.
- ◆ 아세안 국가간에는 Inter Connection to Power Greed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 개발에 있어서는 저탄소 성장문제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에너지 생산방식과 저탄소 성장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해야 함.
- ◆ 수질과 관련한 주민의 건강문제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이에 필요한 교육과 수질관리시스템 또한 함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 개발도상국들은 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국제간 협력이 절실함..
- ◆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과 국제간 협력 파트너십 통해 에코투어리즘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수퍼그리드는 유럽과 아랍을 연결하는 효율적 에너지, 전력 생산과 소비를 위한 네트워크임. 국가간 협력을 통한 수퍼그리드로의 진화가 진행중이고 개선의 여지가 많음. 동북아 국가간의 에너지 협력도 매우 중요
  - ◆ 아세안 국가간에는 Inter Connection to Power Greed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에 있어서는 저탄소 성장문제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에너지 생산방식과 저탄소 성장이 양립하는 방향으로 국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력해야 함.
- ◆ 수질과 관련한 주민의 건강문제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 이에 필요한 교육과 수질관리시스템 또한 함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함. 개발도상국들은 이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따르므로 국제간 협력이 절실함.

##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 비전

- 사회: 이남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발표: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이로재 대표) / 아론 탄 (Research Architecture Design, 건축가)  
이정면 ((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토론: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이광만 (간삼 대표,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키워드: *Meta Landscape, Hangzou, XiXi Development, Clianmen City*

### >>핵심 논의 내용

- ◆ 이정면은 제주도를 정하는 두가지 시선. 삶과 삶의 터전 두 가지를 제안. 제주의 슬로건은 Only Jeju. 제주의 가치는 휴식과 삶. 느낌의 미학. 울레와 힐링. 제주는 비워져야 하고 비워진 곳에 풍부한 인문학적 요소가 녹아 들어가야 함. Clinamen 개념 도입 제안.
- ◆ 아론 탄은 홍콩, 광저우, 싱가포르, 전주, 하이난의 도시 설계 프로젝트 소개하면서 각종 디자인 컨셉을 제시함. 각기 독특한 개념이 도입된 이유를 건축학적으로 설명. 제주를 좌우로 구분하여 Mass와 Eco Tourism의 컨셉을 제안.
- ◆ 승효상은 Meta Landscape를 제안. 여기서 말하는 Landscape는 서양적 사고인 우뚝솟음이 아닌 성찰의 의미임. 제주의 역사적, 문화적, 인문학적 기억들을 무늬로 새겨 넣는 개발이 필요함을 역설. 제주의 지형은 종단적인 구성이므로 별도의 랜드스케이프가 필요 없고 인공구조물과 도시는 영원하지 않으므로 제주의 역사를 기억될 수 있도록 흔적을 새겨야 함을 역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과거 제주의 개발 개념은 새롭게 재설정되어야 함.
- ◆ 낙후된 인프라 건설, 매스적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고 삶과 휴식의 공간으로서, 역사와 인문학적 흔적을 새길 수 있는 건축이 필요함.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개도국의 교통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사회: 정래권 (UNESCAP 환경개발 국장)
- 발표 및 토론: 조준행 (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대응 센터장) / 엘리 시나가 (인도네시아 교통부 도시교통개발 국장) / 로버트 길드 (ADB 교통에너지 국장) / 정래권 (UNESCAP 환경개발 국장)
- 키워드: 기후변화, 교통부문 온실가스, 개도국, 국제협력

### >>핵심 논의 내용

- ◆ 향후 개도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
- ◆ 개도국의 경우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원이 크게 부족
- ◆ 개도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활동지원을 위한 국제 원조방안 모색 필요

##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모델

- 사회: 리처드 세먼스 (GGGI 소장)
- 개회사: 한승수 (GGGI 이사회 의장, 전 대한민국 총리)
- 기조연설: 고미야마 히로시 (미쓰시비 종합연구소 이사장, 전 동경대학교 총장)
- 토론: 권세중 (GGGI 국제기구 TF 과장) / 공삼누온 (캄보디아 환경부 차관) / 두랏 바키쉐브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 트란 트롱 토안 (주한 베트남 대사)
- 키워드: 녹색성장, 국제 협력, 녹색혁신, 글로벌 파트너십, 글로벌 거버넌스

### >>핵심 논의 내용

본 세션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참석자가 패널과 함께 녹색성장 추진 방안 및 기회를 논의하고,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모델을 함께 구상함. 개별국의 노력보다는 재정 및 전문성(expertise) 등의 '기부'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이끌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GGGI의 녹색성장 이 경험의 공유를 돕고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기후변화 등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국의 노력보다는 재정뿐 아니라 전문성(expertise)의 기부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선진국의 녹색성장 경험 전수 등 국제협력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여성

### 젠더와 장애

- 사회: 송경진(세계 경제연구원 부원장)
- 발표: 김형식(한반도국제대학원/중앙대학교 겸임교수) / Joan Durocher(미국 국가장애위원회 총괄국장)  
Hilary Brow(영국 Canterbury Christ Church 응용심리학 교수)

#### >>핵심 논의 내용

- ◆ 일반적으로 여성 장애인은 이중의 차별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과 억압이 그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타인에 의존해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폭력에 더 쉽게 노출 되는데 여성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정부 부처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 ◆ 대개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경우 타인의 힘에 의존해 살아갈 확률이 많은데 이러한 여성 장애인이 폭력에 노출 될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 타인의 힘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여성 장애인에게 어떻게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 ◆ 폭력을 당한 여성 장애인과 어린 아이를 우선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형사법의 체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발표자들의 공통된 의견 중 하나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신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해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일수록 성폭력을 당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성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복지의 핵심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중요한 토론회였다.

**제안 1)** 복지부에서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그렇듯 그 실효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정책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대기업이 여성 장애인을 직간접으로 고용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장애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으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여성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정책,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여성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 ◆ 여성 장애인의 장애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장애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김형식 교수의 발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장애인들 스스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별개로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전반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

**제안 2)** 발표자 김형식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여성 장애인의 고단한 삶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특별히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들만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교육, 훈련, 구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여성 장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본다.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여성 장애인들은 성폭력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경우 처럼 대부분은 자신을 지킬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제안 3)**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의 장애 종류나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전문 요원이 사법체계 안에 배치되어 성폭력 피해 장애 여성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남성 중심, 비장애인 중심, 힘 중심의 정부기관들 특히 경찰, 검찰, 법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므로 폭력을 당한 여성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법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장애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 여성과 브랜드 창조

- 사회: 류현순(KBS 해설위원,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위원장)
- 발표: 안나 팡(Anna Fang Public Relation 대표)
- 토론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장) / 김효선(여성신문대표)  
박선이(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 이해경(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 키워드: 제주여성 글로벌 브랜드 창조, 2세기 가치 창조, 여성신화, 여성설화, 힐링, 모성의 섬, 어머 정신, 브랜드이미지의 개념화 혹은 의미놀이의 필요성

### >>핵심 논의 내용

- ◆ 글로벌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무형자산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제임.
- ◆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상품을 팔리게 하는 것 등 모든 것에 지역사회, 국가브랜드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 ◆ 우리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요구 증대되고 있으나 적절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 본 세션에서는 21세기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디자인, 브랜드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임.
- ◆ 또한 섬세함과, 감수성, 창의성 등 여성의 강점이 인정되고 필요한 사회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주브랜드 창조를 위한 장임 토론의 장임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브랜드창조를 위하여 제주의 경험을 개념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 한번 만들어진 브랜드이미지는 반복되기 힘들기 때문에, 브랜드이미지를 처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제주의 글로벌 브랜드창조를 위하여 제주의 경험을 이미지화하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종합한 브랜드이미지 창조를 위해 현장, 학자 등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 여성신화 이미지, 모성이미지, 어머정신 이미지 등 보편적이고 개방적인 브랜드이미지를 개발할 필요 있음
- ◆ 외국관광사에 대한 개발된 제주관광상품홍보가 필요      ◆ 외국의 직항노선을 더 많이 개발해야 함

## BPW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UN의 WEP

- 사회: 이인실(BPW한국연맹 총무이사/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
- 발표: 이남식(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 토론 박희자(BPW한국연맹 회장/ ㈜필드콘설탄트 부사장) / 김향숙(BPW한국연맹 전 회장/ 충북대학교 교수)  
현인숙(BPW한국연맹 제주클럽 전 회장/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키워드: 기업 최고경영진의 리더십(Establish high-level corporate leadership), 양성평등(gender equality),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 women)

### >>핵심 논의 내용

- ◆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in Brief
- 1. 양성평등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진의 지도력을 확립함.
- 2. 직장에서의 인권과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남녀를 동등하게 대우함.
- 3.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의 건강, 안전과 복지를 보장함.
- 4.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계발을 장려함.
- 5. 여성의 권한부여를 위한 기업의 개발, 공급망, 마케팅 실무역량을 제공함.
- 6. 사회적 지도 및 계몽을 통하여 양성 평등을 장려함.
- 7. 양성평등에 대한 성취도를 측정하고 공표함.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WEP는 비즈니스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위치에서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실천적인 원칙 임.
- ◆ 2014년 BPW 세계대회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 됨.
- ◆ 한국의 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WEP를 적용토록 추천.
- ◆ 아직도 여성계의 국제활동이 취약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정보기술(IT)

###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 사회: 표정호(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발표: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토론: 강봉석(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이사) / 권대우(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윤청광(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 전문영(변호사)
- 키워드: 디지털환경, 정보활용

### >>핵심 논의 내용

디지털 기술은 정보(저작물 또는 콘텐츠)의 생산·유통·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생산자는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용자는 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이 악화되는 악순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를 보호하고 정보의 적법 유통경로를 마련하여 정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유통-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본 세션에서는 디지털환경 하에서 정보의 효과적인 생산·유통·활용을 위한 법제도 현황과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첫째, 다양한 환경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에 따라서 적절한 기술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기술이 도입되거나 새로운 문화가 자리잡음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을 검토하고, 기기보상금 제도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 ◆ 둘째, 저작물의 형태 및 활용에 따라 명확한 정의 및 보상금액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저작물의 이용 정도, 개시 방법, 이에 따른 효과 측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 ◆ 마지막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대중들에 대한 법적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보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정보유저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보 생산자, 유통업자, 이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룬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제 주

###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 사회: 고성규 (엘피온㈜ 대표이사)
- 발표 및 토론: 부원균 (JDC 의료사업처장) / 심원희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실장)  
탄 마이 안(싱가포르 보건복지부 산하 SingHealth 대외협력실장)  
마르티 라우노넨 (핀란드 전 테크노폴리스 부사장, 현 허브컨셉 대표이사)  
샤오 민(중국 차이나시스템셀 바이오그룹 부사장)

#### >>핵심 논의 내용

- ◆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이며, 이는 미래형 도시의 핵심 요소인 교육과 문화,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그린 에너지, 첨단 공공서비스, 에코시티건설 등과 동시에 구축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만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 ◆ 이를 위하여 헬스케어타운이 첫 번째 의료클러스터의 역할을 담당하여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 ◆ 또한 의료클러스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되어야만 하기에, 초기 단계에서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 및 제도적 우위와 같은 제주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가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내 모든 프로젝트 및 도시 설계(스마트시티, 에코시티, 헬스시티) 기능과 구조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제주종합개발계획 및 시행계획들이 하나의 미션으로 귀결되도록 조정 필요)
- ◆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높은 경쟁력과 생산성,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핵심요소들도 함께 도입 되어야 함
- ◆ 의료관광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신공항 건설 등의 접근성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글로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가 특별자치도인만큼 타지방과는 다른 국제적 수준 이상의 차별화된 의료제도 완화가 필요하며, 특히 구축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 또한 글로벌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과는 별개로 민간기업들의 참여와 유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하여 제도의 차별화와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야 함
- ◆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복합의료단지이므로 이를 1단계 의료클러스터로 활용하고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무적 지원이 시급하며 나아가 2, 3단계 이상의 의료클러스터를 개발 해야 함

### 제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전략

- 사회: 좌승희(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표 및 토론: 에버렛 베빗 (미국 Bellingham Marine Industry 대표), 존 스프레지  
후안 까를로스 로드리게스 토베쓰(스페인 CKIPM Marine Group 부사장)  
강석주 (CK Marine Group 대표) / 오수영 (국토해양부 사무관)
- 키워드: *마리나산업, 해양레저산업, 해양관광활성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 >>핵심 논의 내용

- ◆ 세션의의 : 최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해양레저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제주도의 해양환경의 강점을 활용한 제주도 마리나산업육성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방안모색을 주제로 함.

- ◆ 마리아나의 역할과 마리아나항만개발
  - 마리아나항만 개발의 성공요인과 항만개발
- ◆ 스페인 해양관광 개발방향
  - 마요르카섬(MALLORCA ISLAND)의 해양관광산업 방향
  - 가장 최근에 개발된 IBIZA 마리아나 개발사례 소개
- ◆ 국내마리아나 개발사례 및 프로세스
  - 아라마리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등 개발사례 발표
  - 마리아나개발 프로세스 분석 및 주요이슈 점검
- ◆ 한국의 마리아나산업 육성전략(국토해양부)
  - 국내 마리아나산업 현황 및 육성전략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종합적으로 요트계류기능적이 아닌 관광인프라 관점으로 여건은 상당히 양호함을 전제로 마리아나 시설은 단순 항만시설이 아닌 관광 인프라 시설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아이템으로의 마리아나 산업의 육성을 적극 제언. 계절변화에 따른 수요시장 변동에 대한 사전분석 및 대비, 운영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이벤트 개발 등을 당부하며 제주가 다시한번 관광명소로서 특히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허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션을 종료하였다.

## 21세기 시대정신과 김만덕

- 사회: 양영철(제주대학교 교수)
- 발표: 앤 힐티(사회과학연구원, 이어도사나) / 박태규(연세대학교 교수) / 이미경(티앤비경영컨설팅(주) 대표이사) / 아데미 이즈메스티에브(UNDP 서울정책센터 정책고문) / 윤현봉(한국해의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토론: 양원찬(김만덕기념사업회 대표) /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핵심 논의 내용

- ◆ 김만덕과 양성평등
- ◆ 한국 자선기부의 동향과 과제 - 민간기부의 활성화 고액자산가의 기부
- ◆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현재 경향과 김만덕 정신
- ◆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방향      ◆ 여성사업가의 사회기여와 실천정신

### >>정책 제언 및 시사점

- ◆ 언론 및 경제단체와 협의하여 김만덕 정신을 국가의 리더들의 책임과 연계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세미나, 전경련 등 경제단체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
- ◆ 현재 김만덕상을 국내 여성인사에 한하고 있는 것을 필리핀의 막사이사이상(Magsaysay Award) 같이 국외의 인사(남녀 구분 없이)에게 수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 ◆ 국가차원에서 김만덕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국립박물관에 전시하여 우리 조상 중에도 200여 전 전에 찬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화두인 나눔과 봉사를 직접 실천한 인물이 있었음을 국내외에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소규모 자선단체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확한 검증을 거친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 시사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김만덕 정신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가장 적합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세미나에 참석한 외국 학자와 연구가, 그리고 국내의 해외 자원봉사 리더들이 나눔과 베품의 정신을 실천한 김만덕은 오늘날의 세계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멘토라 하여도 전혀 모자람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 세션별 주요 논의 결과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 사회: 양영오 (제주발전연구원장)
- 발표 및 토론: 박양호(국토연구원장) / 이동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이병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최병일(한국경제연구원장) / 한표환(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키워드: 제주국제자유도시, 권한이양, 재정지원, 자구노력

### >>핵심 논의 내용

-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잘된 점도 있고 미진한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도시로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 ◆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신개방 인프라 구축, 둘째, 녹색성장 등에 주파수를 맞추고, 셋째 세계경제 상승국면에 맞춰서 관광문화 녹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 ◆ 중앙정부의 인식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왜 필요한지, 왜 제주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인지 등 철학과 정신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 ◆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하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품격있고 아름답고 제주문화가 빛나는 공항 건설
- ◆ 자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장기적인 생태보전 계획 수립
- ◆ 농업과 연계한 경관 관광 융복합화 고부가가치전략 구사
- ◆ 정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인식이 퇴색되고 있어 공감대 형성 및 신뢰회복이 급선무
  -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왜 필요한지, 제주를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정부와 제주 간의 교감 필요
  - 권한 이양된 여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려는 자구노력 필요
- ◆ 폐쇄적이고 자족하는 제주인의 자세에서 개방적이고 세련된 제주인으로 변해야
  - 바가지 요금, 숙박시설 등 관광객수용태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 필요
  -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완화 및 세심한 배려 등의 인식 전환
  - 더 글로벌하고 품격 있는 제주인의 모습 정립 필요

##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 사회: 정용모 (JDC 전 투자사업본부장)
- 발표: 백인규 (JDC 관광사업1처장) / 장진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장희순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한빙 (한주어울사사무소 대표 변호사)  
초동춘(전 부산 중국총영사) / 탕샤오단(실버션 그룹 회장)
- 키워드: 중국차이나타운, 중국자본유치

### >>핵심 논의 내용

현재 제주 관광 개발 및 산업에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차이나타운개발과 중국자본유치

### >>정책 제안 및 시사점

- ◆ 차이나복합타운 성공을 위해서 중저가 호텔, 임대분양용 리조트나 별장 같은 장기체류 인프라 조성 필요
- ◆ 호텔, 상가, 음식점, 등에 개별 투자를 쉽게 하여야 함.
- ◆ 시설 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투자나 취업비자의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함
- ◆ 장기체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단지 내에 병 의원, 영어 중국어 집중교육이 가능한 국제소학교 등 교육 의료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함.
- ◆ 차이나 복합단지 개발의 입지는, 전국적인 현상인 구도심의 쇠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접근하여, 외곽지보다는 구도심에서 도심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함.



행사일정표

2012-05-31(목)						
크리스탈홀 B		크리스탈홀 C		크리스탈홀 D	다이아몬드홀 A	다이아몬드홀 B
08:00						
30						
40						
50						
09:00						
30						
10:00						
30						
11:00						
30						
12:00						
30						
13:00	등록 (13:00-20:00)					
30						
14:00	특별세션 축하공연					
30						
15:00	[특별세션] 스티브 워즈니악과의 대화: PC시대의 종말과 IT산업의 미래					
30						
16:00	그랜드볼룸					
30						
17:00	커피 브레이크					
30						
18:00	보안 정책의 미래	한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블랙야크, 브랜드로 정상에 서다	장수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와 위험사회 그리고 기후산업의 기회	
30	이 등					
19:00						
30	개별만찬 섬모라(양식), 하노루, 이디(한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중국기업인 특별만찬 [by invitation only] 그랜드볼룸		
20:00						

## 행사일정표

2012-06-01(금)							
08:00	크리스탈홀 A	크리스탈홀 B	크리스탈홀 C	크리스탈홀 D	다이아몬드홀 A	다이아몬드홀 B	그랜드볼룸 C
	등록 (08:00-20:00)						
09:00	관광 상품 브랜드화 & 문화컨텐츠	생산과 수출에서 내수시장으로 바뀌는 중국경제와 기업 전략을 읽는다	국제협력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의 방향과 사례	한미 원자력협력을 보는 새로운 시각	인도 타타그룹의 신뢰경영 - 한국에 뿌리를 내리다	도시환경과 도시디자인을 통한 제주의 미래비전	
10:00	[개회식] 기초연설						
11:00	그랜드볼룸						
12:00	[세계지도자세션]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13:00	개별오찬 섬모라, 하노루, 이디 (뷔페)					외교부장관 주최 특별오찬 [by invitation only] 루비홀	
14:00	젠더와 장애 [그랜드볼룸]	한·중 수교 2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방향	개도국의 교통 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환태평양 평화 공영 도시협의체 회의: 태평양의 징검다리	글로벌 브랜드 스페셜리스트로의 도약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경영전략	금융강국 코리아 만들기 - 애널리스트의 경쟁력을 말한다
15:00	커피 브레이크						
16:00	6자 회담의 전망과 미래	세계화 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I -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아시아지역 민주주의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의 리더십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	브랜드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	사모펀드의 최근 동향과 쟁점
17:00	커피 브레이크						
18:00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비핵무기 지역화는 여전히 가능한가?	세계화 시대 새로운 동아시아와 역사교육의 과제 II - 동아시아 지역 인식과 역사교육의 역할-	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 대학과의 교류 협력 구축방안	한반도 통일과 중국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지속경영의 글로벌 트렌드 II	
19:00	휴식 및 이동						
20:0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 환영만찬						
	그랜드볼룸						
	MBA(Music Business Art) Concert from aSSIST 다이아몬드홀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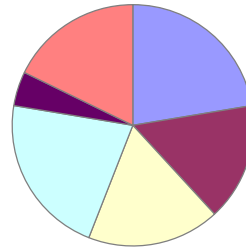
행사일정표

2012-06-02(토)							
08:00	크리스탈홀 A	크리스탈홀 B	크리스탈홀 C	크리스탈홀 D	다이아몬드홀 A	다이아몬드홀 B	그랜드볼룸 C
08:00-18:00	등록 (08:00-18:00)						
09:00-10:00	2012년 동북아 정치변동과 동북아 신질서 구축	물류산업 & 유통채널	국제개발협력: 글로벌 공공재와 동북아시아의 ODA II	지식재산권과 여성	자본주의 4.0 시대를 맞은 한국경제와 기업의 과제	지세화 (Localization) - 세계를 움직인다	글로벌 녹색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모델
10:0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00	시장경제는 복지국가의 늘어 나는 수요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명품 브랜드 관리와 효율적인 마케팅	한국과 중국 고속철도에 의한 국가발전	제주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 전략 - 오션마리나 시티 개발 및 운영을 통한 해양 레저산업 진흥	위기와 재난의 풍파로 잠을 깬 일본기업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정보 활용의 조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ASEAN과 동아시아 협력
12:00-13:00	이. 동						
13:00-14:00	개별오찬						
14:00-15:00	섬모라(양식), 하노루, 이디(한식)						
15:00-16:00	북한 김정일 이후 체제는 어디로? : 외부세력은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중 합작 펀드 결성 및 운용방안	CSV(공유가치 창출) - 글로벌 기업의 성공조건	해의 유명대학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유치방안	에너지는 세계경제의 미래다	국가경쟁력의 글로벌트렌드-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시너지효과	21세기 시대 정신과 김만덕
16:00-17:00	커피 브레이크						
17:00-18:00	여성과 브랜드 창조	한류와 동아시아 협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전략	제주도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 전략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글로벌 헬스케어 분석	아시아의 미래 전략 - 글로벌 리더십, 위기 극복의 길을 찾다	BPW와 여성의 권한강화를 위한 UN의 WEP 루비홀 10:50-12:10
18:00-19:00	휴식 및 이동						
19:00-20:00	폐회식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최 폐회만찬						
	그랜드볼룸						

## 참가자 설문조사 결과

### Q1. 귀하께서 소속하신 기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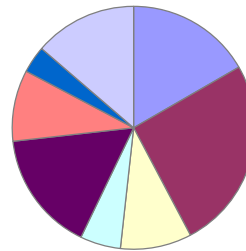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정부산하/행정기관	21.4%	36
연구기관	15.5%	26
일반 기업	17.3%	29
대학 및 교육기관	23.2%	39
언론사	4.8%	8
기타	17.9%	30
<b>총 응답수</b>		<b>168</b>



- 정부산하/행정기관
- 연구기관
- 일반 기업
- 대학 및 교육기관
- 언론사
- 기타

### Q2. 귀하께서 소속하신 기관의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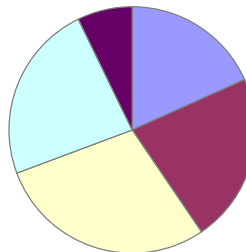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외교, 안보, 국제협력 분야	16.7%	28
경제, 경영 분야	25.6%	43
문화, 예술, 역사 분야	9.5%	16
환경 관련 분야	5.4%	9
교육, 훈련 분야	16.1%	27
지방자치 관련 분야	9.5%	16
IT 분야	3.6%	6
기타	13.7%	23
<b>총 응답수</b>		<b>168</b>



- 외교, 안보, 국제협력 분야
- 경제, 경영 분야
- 문화, 예술, 역사 분야
- 환경 관련 분야
- 교육, 훈련 분야
- 지방자치 관련 분야
- IT 분야
- 기타(구체적으로 명시)

### Q3. 귀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제주포럼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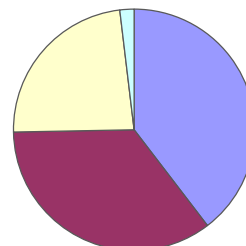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연사 또는 특별 초청	18.3%	31
세션 참여기관의 실무자	21.9%	37
일반 참가자	28.4%	48
세션 참관	24.3%	41
기타	7.1%	12
<b>총 응답수</b>		<b>169</b>



- 연사 또는 특별 초청
- 세션 참여기관의 실무자
- 일반 참가자
- 세션 참관
- 기타

### Q4. 귀하는 제주포럼 참가를 결정하기 전에 제주포럼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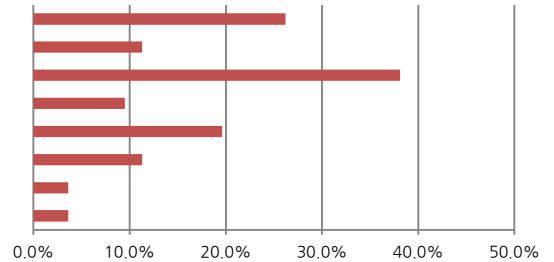
선택지	응답률	응답자수
잘 알고 있었다.	42.4%	72
약간 알고 있었다.	32.9%	56
모르고 있었다.	22.9%	39
기타	1.8%	3
<b>총 응답수</b>		<b>170</b>



- 잘 알고 있었다.
- 약간 알고 있었다.
- 모르고 있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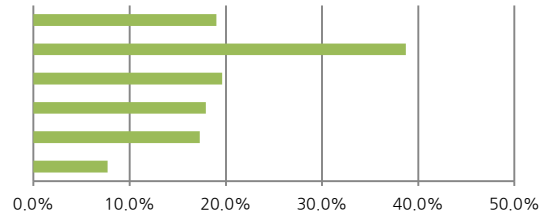
Q5. 그렇다면, 귀하께서 제주포럼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과거 참여했던 경험	26.2%	44
광고(신문/방송/잡지/학회지 등)를 통해	11.3%	19
회사 내 정보 혹은 주변인을 통해	38.1%	64
인터넷 매체를 통해(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9.5%	16
초청장을 받고	19.6%	33
참가 권유 전화를 받고	11.3%	19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해	3.6%	6
기타	3.6%	6
<b>총 응답수(중복 응답 포함)</b>		<b>207</b>



Q6. 귀하의 제주포럼 참여 목적은 무엇입니까?(중복 체크 가능)

선택지	응답률	응답수
평화,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19.0%	32
경제, 경영 분야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접하려고	38.7%	65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9.6%	33
주변인, 직장에서의 참여 추천으로	17.9%	30
유명 인사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	17.3%	29
기타	7.7%	13
<b>총 응답수(중복 응답 포함)</b>		<b>20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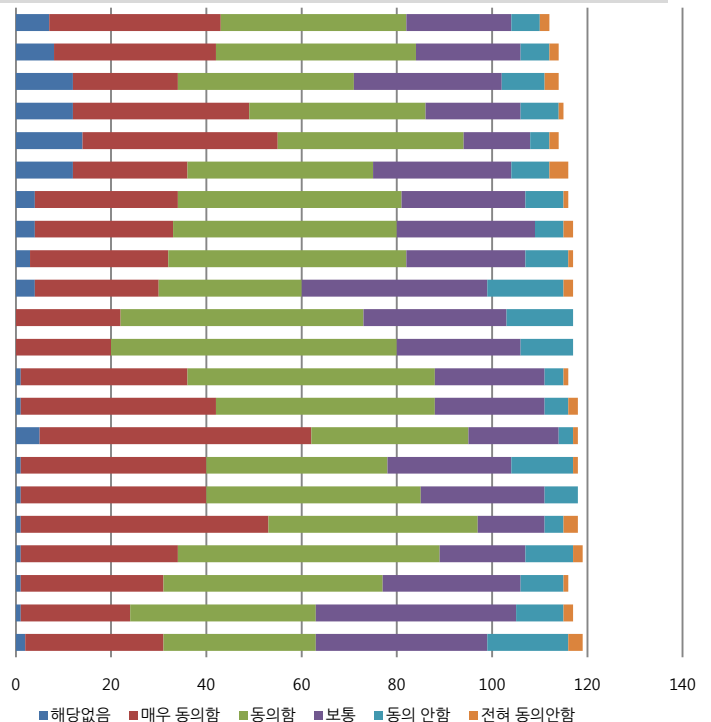


Q7. 귀하의 제7회 제주포럼 참여에 대한 만족도를 각 부문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십시오.

- 1) 사전 홍보가 잘 되어 행사 참가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
- 2)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 3) 참가 신청이 편리하였다.
- 4) 행사장 내 안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찾기 쉽다.
- 5) 등록 데스크에서 신속하게 등록처리를 할 수 있었다.
- 6) 행사장 배치(조성)가 잘 되어 이동하기 편했다.
- 7) 행사장까지의 교통이 편리하였다.
- 8) 풍나라운지의 운영 및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 9) 행사 시기(5월말) 및 연례 개최가 적절하다.
- 10) 행사 기간(3일간)이 적절하다.
- 11)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2)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13) 참가자 간 네트워킹의 기회가 많다.
- 14) 통역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 15) 운영 요원들이 전문적으로 운영하였다.
- 16) 세션 시간(80분)이 적절했다.
- 17) 관광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고 흥미로웠다.
- 18) 객실이 만족스러웠다.
- 19) 연회 및 오찬 식사 품질 및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
- 20) 제주포럼의 참여비용이 적당했다.
- 21) 내년 제주포럼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
- 22) 주변 동료에게 내년 행사에 참가하도록 권장하겠다.

총 응답자수

119명



## □ 조직

### >>조직위원회

- ◆ 조직위원장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 조직위원 김성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외교통상부 차관
- 김우상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 김 준 동아시아재단 운영이사
- 김형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정달호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
-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 허향진 제주대학교 총장

### >>집행위원회

- ◆ 집행위원장 한태규 제주평화연구원 원장
- ◆ 집행위원 김대은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 김종훈 제주대학교 교수
- 김태환 한국국제교류재단 공공외교사업부장
- 남정호 중앙일보 글로벌협력팀장
- 박영호 외교통상부 국제안보과장
- 변대호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장
-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오형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홍보실 부장
- 유종성 제주특별자치도 평화협력과장
-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홍면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홍형택 동아시아재단 사무국장

### >>제주포럼 기획단

- ◆ 기획단장 변대호 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 팀장 김순선 제주평화연구원 기획조정실 회의팀장
- ◆ 팀원 허수정 Program Officer
- 추상우 Program Officer
- 양영식 총무
- 강지숙 회계